

문화 서재

2025 01 VOL.215

문화서재



1



《행복을 찍는 사진작가, 안나 앤 다니엘》
 스페인 사진작가 안나 데이비스와 다니엘 루에다의 첫 한국 개인전이 열린다. 1990년생 동갑내기 사진작가 듀오인 이들의 작품은 일상 속 사소한 순간의 행복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금, 오히려 편집 프로그램 없이 자연광과 연출만으로 만들어낸 장면이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 전시는 '음악 대가', '호기심×도시',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모자라고?!' 등 네 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용된 소품, 스케치 등을 함께 만날 수 있다.
3월 30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1668.135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올해 17회를 맞이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산실'이 공연예술 6개 장르 '올해의신작' 31편을 선보인다.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기초공연예술 분야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332편의 신작을 발굴했다. 올해는 동시대성·다양성·수월성·실험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연극 7편, 창작뮤지컬 7편, 무용 7편, 음악 2편, 창작오페라 3편, 전통예술 5편을 공개한다. 1월에는 연극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 〈벼개가 된 사나히〉, 〈목련풍선〉, 창작뮤지컬 〈무명호걸〉, 〈오셀로의 재심〉, 〈그해 여름〉, 〈넬리블라이〉, 〈라파치니의 정원〉, 무용 〈당신을 배송합니다〉, 〈님, 왕자의 길〉, 전통예술 〈해원해줄게요: REMASTER〉를 서울 시내 공연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3

5

KBS교향악단 제810회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은 올해 첫 연주회를 엘리야후 인발이 지휘하는 모차르트·쇼스타코비치·버르토크로 연다. '20세기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 첼리스트 한재민이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으로 호흡을 맞춘다. 강렬한 현대성, 고혹미 넘치는 카덴차, 마지막에 이르러 폭발하는 열정으로 하여금 특별한 감동을 자아낼 것이다. 고전주의 교향악의 전범과 같은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비장한 통찰력이 깃든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함께 만날 수 있다.
1월 24일 오후 8시 | 롯데콘서트홀 | 02.6099.7400



©Jaemin Han | 국립현대미술관

《이강소: 풍래수면시》
 이미지의 인식과 지각에 관한 개념적인 실험을 지속해온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 이강소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 '바람이 물을 스칠 때'라는 뜻의 전시 제목 '풍래수면시'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침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의식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송나라 성리학자 소옹의 시에서 따왔다. 전시는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작가가 꾸준히 탐구해온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창작자이자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 작가 자신의 인식에 대한 회의, 작가와 관람객이 바라보는 대상에 관한 의문이다. 설치·오브제·회화·사진 등 1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만나보자.
4월 13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국립현대미술관

금천구 개청 30주년 특별공연 <환어>
 개청 30주년을 맞은 금천구에서 특별공연을 준비했다. 복합 창작극 <환어>는 금천구 소재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시흥행궁을 재해석한 작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금천구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협업해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
1월 24일과 25일 |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7

글로벌 발레스타 초청 갈라공연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무용수들이 한 무대에서는 갈라 공연이 열린다. 파리오페라발레 박세은, 네덜란드극발레 최영규, 보스턴발레 채지영·이선우·이상민, 워싱턴발레 이은원, 휴스턴발레 양채은, 아메리칸발레시어터 한성우, 로열발레 전준혁 등이 함께하며,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무용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K-ARTS 발레단이 무대에 오른다.
1월 11일과 12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000

8



국립무용단 <2025 축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국립무용단이 풍성한 한국춤 전지를 마련했다. 어느덧 국립무용단의 명절 대표 공연으로 자리잡은 <축제>는 여덟 번째 공연을 맞아 다양한 소품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품격과 격식을 담은 전통 춤부터 젊은 감각의 창작 춤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맞고 흥을 더할 예정이다.
1월 29일과 30일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2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4》
 차세대 문화예술을 이끌 유망 창작자를 발굴하고 대학계 간 협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프로젝트 해시태그' 선정 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뤄지는 메타버스 세상인 소망 세계를 구축하는 '소망사무국'과 게임이 미술관에 전시될 때 발생하는 여러 질문을 통해 의미 있는 담론을 창출하고자 하는 '플레이 아트 메소드'가 그 주인공. 전시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니 서로 다른 분야의 협업이 갖는 의미가 궁금하다면 주목할 것.
4월 27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4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수상작 특별전

한국의 현대공예 1세대 대표 작가이자 교육자인 고 유리지 선생을 기리고자 제정한 서울시 최초의 공예상인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첫 번째 수상자가 발표됐다. 목공예가 강석근 작가는 2021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으며, 록셈부르크 아트 프라이스를 받은 바 있다. 수상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 <지구의 언어>는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소원도 갤러리에서 3월 16일까지 열린다.

2024.12.20. - 2025.3.16.

9 10



국립극장 <마당놀이 모듬전>

20만 관객을 웃고 울린 국립극장 마당놀이가 10주년을 맞이해 돌아왔다. 2014년 <심청이 온다>로 시작해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춘풍이 온다>까지 그간의 대표작 중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을 엮어 <마당놀이 모듬전>을 만들었다. '마당놀이 스타 3인방' 윤문식·김성녀·김종엽이 특별 출연하고, 국립창극단 스타 배우들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1월 30일까지 | 국립극장 하늘극장 | 02.2280.4114



한강겨울페스타

겨울철 한강 즐길 거리를 모은 한강겨울페스타가 여의도·독섬·잠원·망원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무려 22만 명이 발걸음한 만큼, 올해는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과 한강페스티벌 겨울, 한강 눈썰매장, 트리 장식 체험 등 공간별 행사 일정이 상이하니 방문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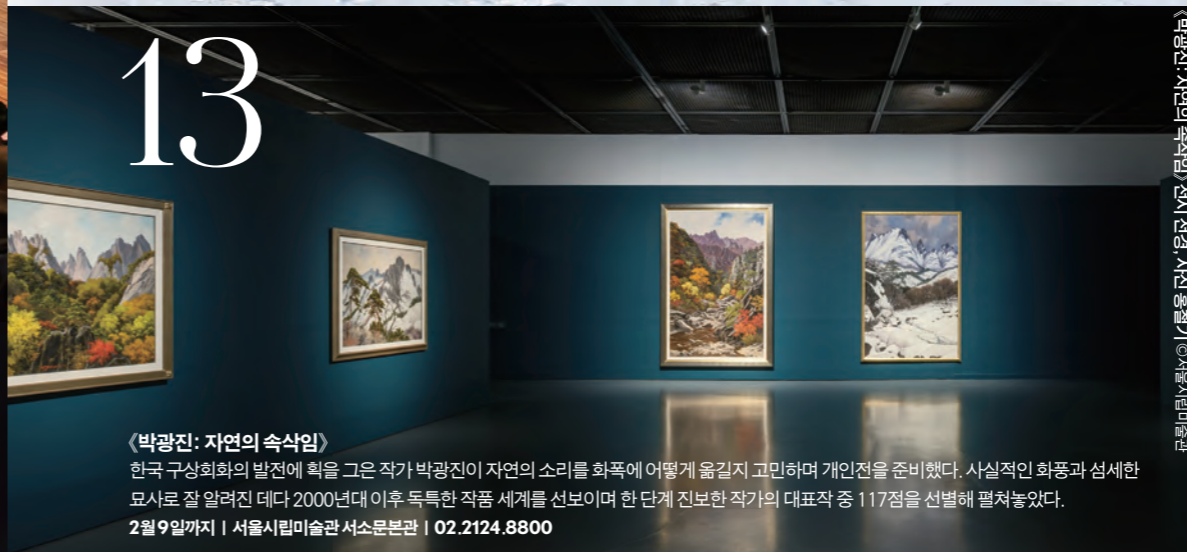
12

11

서울시향 신년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새 시즌을 열며 예술감독 야프 판 베네펠과 신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멘델스존이 1830년 처음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느낀 인상을 담은 교향곡 4번 '이탈리아'로 공연을 시작한다. 2부에서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며,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로 마무리한다.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1588.1210



<박광진: 자연의 속삭임>

한국 구상회화의 발전에 획을 그은 작가 박광진이 자연의 소리를 화폭에 어떻게 옮길지 고민하며 개인전을 준비했다. 사실적인 화풍과 섬세한 묘사로 잘 알려진 데다 2000년대 이후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한 단계 진보한 작가의 대표작 중 117점을 선별해 펼쳐놓았다.

2월 9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02.2124.8800

박광진: 자연의 속삭임 | 전시 전경 | 사진: 홍철기 | ©서울시립미술관

퓨처시티

Future City Seoul

서울

@DDP 디자인랩 3층

2024.11.29. OPEN | 퓨처시티 서울: 빛으로 그린 미래

14

성수1플레이파크 개장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놀이 공간 성수1플레이파크가 문을 열었다. 성수동1가 479-4에 위치한 이곳은 놀이터와 운동장·공원으로 구성된, 이름 그대로 '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노후한 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운동 약자 등의 신체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서울형 액티브 디자인 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퓨처시티 서울: 빛으로 그린 미래>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상상한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 아티스트 미구엘 슈발리에의 신작 <메타 시티 시 서울 2024>를 시작으로, 박제성·이재형·과올라 등 국내 작가와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4월까지(예정) | DDP 디자인랩 3층 | 02.2153.0000

15

16

언두 플래닛
2024.11.3. - 2025.1.26

나나 엘빈 한센, 낸시 홀트, 댄 리, 로버트 스미슨, 데이비드 미첼, 사이드 코어, 시마부쿠, 시몽 부드빙, 실라스 이노우에, 안 보, 앙투안, 이카비우르르, 임동식, 타렉 아투이, 팡록 술랍, 하셀 알 램키, 홍영인

Undo Planet
December 3, 2024 - January 26, 2025

Nanna Elvin Hansen, Nancy Holt, Dan Lie, Dane Mitchell, Robert Smithson, SIDE CORE, Shimabuku, Simon Boudvin, Silas Inoue, Danh Vo, Haegue Yang, ikkibawikrrr, Rim Dongsik, Tarek Atoui, Pangrok Sulap, Hashel Al Lamki, Young In Hong

UNDO MEMORY (IM)

A SJ C

〈언두 플래닛〉
기후 변화와 생태계 문제를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고찰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 제목의 '언두Undo'는 '원상태로 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열다', '풀다'의 의미도 갖고 있다.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지구라는 행성의 기억과,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실천으로 인해 미래의 공동체가 기억하게 될 것들을 고민하고, 도래할 생태계의 가능성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총 17명(팀)의 작가들이 '커뮤니티', '비인간', '대지미술'을 주제로 고민하고 탐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1월 26일까지 |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스페이스1 | 0507.1321.8951

17

유류공간 전시 〈멀리서 손바닥으로 반짝〉

연말 연초를 맞아 우리 주변의 반짝이는 것들, 반짝이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를 제안하는 특별한 전시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층 유류공간에서 열리고 있다. 알루미늄·캔·아스팔트 등 도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존재를 다시 살피며 자신만의 재치 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여운해 작가의 대규모 신작. 관객 참여 퍼포먼스와 이벤트도 마련됐다.
8월 17일까지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02.2124.5201

〈별문예가〉 2024. 8. 17. 이은 ©서울시립미술관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 III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민요를 편곡해 누구나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 세 번째 결과물로 국악그룹 구이임과 협업해 '나물노래', '동그랑땡', '중치노래' 세 곡을 발표했다. 원곡의 가사를 충실히 유지하되, 국악기와 양악기의 협주를 시도하는 등 과거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해당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울예술인NFT 갤러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1층 '서울예술인NFT 갤러리'가 재단장을 마치고 이곳을 오가는 시민과 예술가에게 새 얼굴을 비추고 있다. 공간 곳곳에 스크린으로 마련된 갤러리에는 2024년 새롭게 발행된 NFT 작품은 물론, 3년간 제작된 작품이 상설 전시된다.

18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 III

서울우리소리박물관

19

99ARTCOMPANY

서울우리소리박물관

20

〈기억의 정경: 사라지는 여운〉

문화예술 특화 공간인 문화비축기지에서 흥범 작가의 '기억과 공간'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준비했다. 작가는 우리의 기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고,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시각적으로 탐구하며 과거 섬유 저장 시설이던 문화비축기지 탱크의 독특한 장소성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11월 19일까지 | 문화비축기지 T1, T6 | 02.376.8734

흥범 〈기억의 정경〉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신춘문예의 계절, 책이 길을 내준다

SCENE

- 10 칼럼 문학 사랑하는 일
- 12 에세이 연희문학창작촌을 활짝 열며
- 14 리스트 열두 작가의 선택과 함께 새해, 독서할 결심
- 22 스테이지 대중을 압도한 '이야기의 맛'
- 26 이슈 독서로 매개하는 새 문화 #독서모임 #텍스트힙
- 28 에세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 모일 때

- 30 예술가의 진심 신유청, 물처럼 흐르는 연극을 꿈꾸다
- 36 예술인 아카이브 전지영
- 38 예술인 아카이브 윤향로
- 40 페이퍼로그 정보관리팀 김형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 42 인사이드 예술인들의 디지털 박물관 서울예술인NFT
- 44 인사이드 다정한 산타의 노들공장 안에서 노들원터페스타
- 46 인사이드 N개의 문화, N개의 이야기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
- 48 트렌드 독일 문화예술계, 안녕한가요?

COLUMN

- 52 스크린 너머의 세상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54 걷다가 마주친 춤 납작한 안무에 생명 불어넣는 건 우리들이지
- 56 낯말은 새가 듣고 낯말은 시가 읊는다 한을 품고 시작하기—한발과 한걸음
- 58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살풀이춤, 온전히 자신을 가다듬는 춤사위
- 60 일상 걸의 공예 공예에 깃든 시대 미학
-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COVER STORY
연희문학창작촌
붉은 벽돌이 고즈넉한 분위기의 연희문학창작촌. 별이 드리우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그 자체로 그림이 되는 이곳에서 새해를 시작해본다.

FOCUS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신춘문예의 계절, 책에 걸을 내주다

새해가 밝았다. 일 년간 자리를
지킨 숫자가 2024에서 2025로
바뀌는 날, 새벽같이 도착한
지면엔 우리 문학계를 밝힐
새 얼굴이 장식해 있을 것이다.
새로움을 덧입은 계절,
책 한 권과 함께하는 풍경을
그리며 문학과 함께할 결심을
전해본다.



연희문학창작촌

← 10m 공림(1동)
← 40m 공림(2동)
Hammock

문학을 사랑하는 일

책을 덮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변모한다. 나의 중심이 미세하게 어긋난다. 문학은 사랑하는 일은 나의 어긋남과 변모를 사랑하는 일이다. 나의 나아됨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는 대학문창과에서 몇 년째 세계문학을 강독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종강 날이었고, 캠퍼스에는 눈이 펄펄 내렸다. 길게는 이백여 년 전의 세계문학 작품을 읽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다. 학생 가운데 하나가 노란 꿀을 선물로 주었고, 수업이 끝난 후 빈 강의실에서 꿀을 까먹었다. 창밖에서 내리는 함박눈과 꿀의 새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렸다.

머나먼 시공간을 날아와 안산에 위치한 한 강의실에 도착한 텍스트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이 가끔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타임캡슐을 전달받는 느낌이고, 문학은 그것이 쓰일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어떤 낯선 미래에 도착해 작은 소란을 일으키며 현재와의 대화를 촉발한다. 긴 시공간을 여행하던 책은 잠시 눈이 내리는 강의실 창틀에 앉았다가 떠난다. 겨울 철새처럼, 서서히 사그라지는 지저귀음을 남기고.

문학은 내가 살아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의 곁에 있었다. 나에게도 나만의 자질구레한 인생사가 존재하지만, 내가 내 삶의 고유한 궤적을 따라가는 과정은 또한 문학과 동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나의 삶에 시달리다가도 버릇처럼 책을 펼치고 타인의 삶과 만났다. 그때마다 나의 삶을 잠깐 동안 잊어버렸다. 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일상에서도 문학으로 인해 소박하게 감동할 기회를 얻었고, 허덕이거나 피로한 와중에도, 혹은 상처받거나 개인적인 일들로 괴롭고 슬픈 와중에도 문학 속에서 전율할 기회를 얻었다.

나는 나의 유한한 삶에 포함되었거나 감금되어 있었지만, 문학은 나를 나의 너머로 데려가거나 내 삶 안쪽에 타인의 삶과 목소리를 도입했다. 나는 문학으로 인해 문득 나로부터 멀어졌고, 책이라는 타자의 시간 속에서 헤매며 어떤 낯선 문장이나 이야기를 보물처럼 간직한 채 나의 삶으로 되돌아왔다. 내 삶이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대로라면, 문학은 이 정방향의 길 위에 내 한정적인 시공간 바깥으로 향하는 무수한 샛길을 포개놓는다. 문학은 내가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너머의 시간에 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준다. 나를 망각할 능력을, 나의 망각 속에서 가능해지는 낯선 시간에 응답하고 그 낯선 시간 속에서 방향할 능력을 길러준다. 굳이 왜 나를 망각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뽀족한 정답은 없지만.

나는 이백여 년 전의 파리에, 백여 년 전의 프라하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의 안산에서, 문학 작품을 읽지 않았다면 영원히 나와 무관했을 어떤 흐릿한 유령의 고통과 경이, 아름다움과 추락,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문학은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단지 고통받는 인간이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인간이, 부조리에 억눌린 인간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 존재의 실감을 드러낸다. 그들의 존재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한다. 그들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일은 내 안에 잠재하는 고통에서 탈출할 역량, 구원을 회구할 역량, 해방을 타진하는 역량을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망각 속에서 타자 속으로 들어서고 내게로 귀환하는 반복된 원환을 그린다. 이곳에는 나의 삶만이 가득하고, 문학 속에는 타인의 삶만이 가득하다. 책을 덮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변모한다. 나의 중심이 미세하게 어긋난다. 문학은 사랑하는 일은 나의 어긋남과 변모를 사랑하는 일이다. 나의 나아됨을 사랑하는 일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나는 가방에 있던 민병훈 작가의 『금속성』을 펼쳤다. 페이지 위로 눈송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깨를 웅크린 채 책을 쥐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눈에 점령된 도시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도시가 계속 생겨났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민병훈, 『금속성』, 문학실험실, 2024, 118쪽) 그곳이 내가 모르는 곳이라는 사실은 확실했다.



연희문학 창작촌을 활짝 열며

글자와 글자로 짜인 목직 한 대문을 활짝 열자 옹기종기 낮은 집이 마을을 이룬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새 식구를 맞이하는 연희문학창작촌의 새해 이야기.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연희문학창작촌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며 내뱉는 말이다. 고즈넉한 연희동, 그중에서도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문학적 영감을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서울 도심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 행사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은 작가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연희문학창작촌의 매력적인 요인이다.

창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2009년 문을 연 문학 전문 창작공간으로, 지금까지 700명 넘는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총 19개의 집필실은 작가는 6평에서 크게는 13평까지 다양한 크기로 마련돼 있으며, 집필과 생활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작가들이 24시간, 365일 창작에 몰두하도록 돕는다. 문학 작가들을 위해 이러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새해, 새 작가들과의 만남

2025년 연희문학창작촌은 새롭게 함께할 입주작가 71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시, 소설, 어린이·청소년문학, 희곡 등 문학의 주요 장르뿐 아니라 비평과 번역 등 문학의 저변을 확장하는 분야에서 활약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국어 교과서에서 보던 익숙한 이름부터 신진 작가까지,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작가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림책’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류해 공모를 진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흔히 그림책은 어린이문학의 하위 범주로 여겨지지만, 그림책은 독립된 분야로 모든 연령의 독자가 향유할 수 있는 장르다. 이러한 시도는 그림책 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다수의 그림책 작가가 입주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넘어서

연희문학창작촌은 1968년에 지어진 건물로, 동시대적 기준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과 서비스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가 있는 작가들이 입주 공모에 지원하고, 최종 선정돼 함께 창작여정을 이어가게 되었다.

더 많은 이들을 품고자

연희문학창작촌이 문학 창작공간으로 자리잡으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탁월한 작가들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은 신진 작가에게도 문학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신진 작가를 위한 집필실을 마련하는 것은 등단과 같은 공인된 절차를 거친 작가들을 존중하되, 더 다양한 문학적 가능성을 포용하려는 연희문학창작촌의 노력의 일환이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그 뒤편에는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시적으로 그려낸 강렬한 산문”이라는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함께, 한국 문학은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 테베라 스미스 Deborah Smith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두 달 동안 이곳에 입주한 일은 연희문학창작촌과 한국 문학의 국제적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해엔 책 한 권 읽어보시죠

현대인은 독서와 운동에 막연한 부채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는 건강한 몸과 사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반영한 것이다. 새해에는 용기를 내어 시집이나 소설책 한 권을 손에 들어보기를 권한다. 그 책 중에는 어쩌면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쓰인 작품도 있을지 모른다. 새해, 연희문학창작촌은 변함없이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문학적 영감을 제공하며,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둘 것이다.



열두 작가의 선택과 함께 새해, 독서할 결심

연희문학창작촌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입주작가들에게 '새해에 읽기 좋은 문학'을 추천받았다. 신년 계획에 독서를 적어 넣은 당신을 위해 그 목록을 공유한다.



순례 주택

유은실 | 2023 | 비룡소 *중복 추천

우리는 이 지구에 잠깐 왔다가는 순례자가 아닐까? 오롯이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유한한 삶의 사투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나누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 수림이네 가족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옛 여자친구의 빌라 '순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솔직하지 못한 엄마, 누군가에게 얹혀사는 데 일가견 있는 아빠, 라면은 꿀일 줄 모르고 컵라면에 물만 겨우 부을 줄 아는 고등학생 언니까지, 수림이네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어 평소 업신여기던 순례 주택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온실 밖으로 나와 세상에 적응하게끔” 수림이네 가족을 훈련 시키는 순례 씨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순례 씨와 수림이 펼치는 코믹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무엇이 삶의 진실인지, 삶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순례 씨가 고단한 우리를 향해, 괜찮다고 쓰담쓰담 건네는 응송깊은 위로에 슬그머니 눈물을 흘리게도 된다. 마지막 책장을 덮은 후에도 한참 동안 붉은 벽돌 빌라의 순례 주택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례의 길을 되짚어보며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순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처럼 수림이네

가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성실한 삶에 축복 있으라!

이옥수

청소년들을 '장단이 없어도 노래하고 춤추고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내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다. 『키싱 마이 라이프』, 『푸른 사다리』, 『겨울기린을 보러 갔어』 등 20여 권의 작품집이 있다.

순례 주택

유은실 | 2023 | 비룡소 *중복 추천

살다보면 가끔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치여 까맣게 잊었던 것들은 대개 어린 시절 배운 윤리나 예부터 내려오는 깨달음이다. 어릴 때의 배움이 자라서 보니 상당히 깊은 것이었다. 진리는 단순하고 오래 간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문학이나 어릴 때 좋아했던 책들을 종종 보곤 한다.

청소년소설이자 최근 베스트셀러인 『순례 주택』은 요즘은 느끼기 어려운 '어른'의 정의를 보여준다. 생활 지능이 높은 애늬은이 중학생 오수림과 누가누가 더 어린가 내기하는 '털 자란' 부모·언니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간질간질 재밌다. 쫄딱 망한 금쪽이 부모가 온실 밖에 나와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요즘의 재테크 상식에 젖어 있던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위로를 받았다.

'양심 있는 어른' 김순례 씨는 세신사로 번 돈으로 빌라를 구입해 저렴한 월세를 받으며 나누는 삶을 산다. 이름처럼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로 살고 싶다는 그를 보며 나 역시 내 인생의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서 인생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진다. 구경만 하는 관광객이 아닌 이 순간과 지금 이곳을 존중하는 순례자의 마음. 자식을 낳으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수림이 덕분에 나 역시도 책을 읽는 동안 조금은 태어난 게 기쁜 시간을 누렸다. 2025년 새해, 올해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득 충전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 따뜻한 언어로 하는 마음의 샤워를 느낄 수 있다.

박성혜

시를 씁니다. 어린 시절 방학마다 동시로 일기 쓰기를 시작한 이후 일기처럼 내밀하게 시를 써왔습니다. 일상에서의 삶과 시사, 여행, 기후 변화 등에 대해 쓰며, 생각을 풀어내는 에세이와 여행과 시를 결합한 여행기도 종종 적습니다. 오래전 미술비평으로 등단했습니다. 소프라노로 합창단을 하고 있으며, 식집사이자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크릭터

토미 웅거러 저·장미란 역 | 1996 | 시공주니어

을사년 초록뱀의 해가 오고 있어요. 초록뱀 하면 토미 웅거러가 쓰고 그린 『크릭터』라는 그림책이 떠올라요. 책 제목이자 주인공 크릭터가 바로 초록뱀이거든요. 다가올 2025년은 어떤가요? 희망찬가요, 아니면 암울한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의 감정이 뻗치고 있어 절망적이고 침울하게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토미 웅거러는 193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전쟁의 끔찍한 경험을 유머로 승화해 수많은 풍자적 작품을 만들어냈죠. 『크릭터』도 그런 작품 중 하나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뱀이라고 하면 위험하고 징그러운 동물로 생각하지만, 토미 웅거러는 '크릭터'라는 뱀을 사랑스럽고 다정하면서도 정의롭게 그려냈어요. 등장인물 중 작가를 대변하는 듯한 할머니는 뱀을 보고 처음에는 까무러치듯 놀라죠. 그렇지만 그 뱀을 밀쳐내고 짓궂게는 대신 이름을 지어주고 끌어안고 보살피요. 혐오가 아닌 애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혐오가 아닌 애정으로 서로서로 돌보았으면 해요.

작가가 초록뱀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렸는지 저도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동화 한 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령이로 어떠한 글을 쓰고 싶다는 대략적인 열개만 있었는데 글의 분위기를 끌고 갈 문장 하나를 떠올리지 못해 끄덕대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크릭터』를 읽으며 번뜩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촉촉하고 양증맞은 분홍빛 아기 지령이'. 그렇게 해서 『너의 작은 친구 이지룡』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답니다.

윤성은

사회복지와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2020년 '안녕, 내 사랑!'으로 사계 김장생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2021년 '내 이름은 콩팥이었지'로 불교신문 신춘문예, '플라스틱 거인'으로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금순이가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오후: 새똥을 세 번 밟은 날』 등이 있습니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

존 케닉 저·황유원 역 | 2024 | 월북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만큼, 많은 분께 혹시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슬픔에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슬픔은 그냥 슬픔이고, 고통은 고통, 괴로움은 괴로움, 우울은 우울. 그냥 이런 감정이거나 하고 이미 있는 표현에 기대 그것이 제 감정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그때 아끼는 분께

추천받은 책임입니다. 깊은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심정을 단지 '우울'이 두 글자로 표현하기엔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기엔 복잡하고, 불안하고 휘몰아치는 하루가 버거운 세상에 살고 있는 한명 한명의 슬픔은 그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를 텐데 말입니다. 당시 아무 말 없이 권유받은 이 책이 제 마음을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보라는 위로처럼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 슬픔은 포카리스웨트인데, 모두가 슬픔을 파워에이드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슬픔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온 음료도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슬픔이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난해 가장 많이 도움받은 책 중 하나라 특히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사실 공감 안 되는 단어들을 스프릭 넘기며 읽었습니다. 언젠간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책을 보면 그뻔 새로운 단어들에 들어오겠죠. 각자의 이름에도 의미가 깃들어 있듯이, 여러분의 슬픔도 고유한 슬픔으로 이름 붙이시고 어루만져주시기를.

이수영

알바생이자, 손님이고, 누군가의 팬이며, 지구인이자, 우주 먼지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면 날아가서, 온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몸으로, 이리저리, 으악. 이억.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적어도 실수할 일은 적어지니까, 앞으로도 느리지만 뜨겁게 해 보렵니다. 그럼 언젠간 여러분께 닿을 수 있겠죠.



두번째 달

최이수 | 2021 | 에디토리얼



『두 번째 달』은 국립과학관학관이 주관하는 2021년 SF 어워드에서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야기는 두 번째 달이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시작된다. 기존 달처럼 구 모양의 위성이 아니고, 책 표지에 있는 것처럼 검은 큐브로 만들어진 기다란 직육면체 형태다. 검은 큐브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NASA는 두 번째 달을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반대도 있었지만, 기어코 그것을 가져온다. 이후 그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발표를 내놓지 않는다. 3년 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NASA 국장은 온라인에 기밀 문서 하나를 올린다. 두 번째 달의 해독 정보다.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10만9722년 이상 돌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간의 기록을 담은 운행 일지가 담겨 있었다.

기록보관소는 감정을 학습한 인공지능 ‘아에록’이 운영한다. 아에록의 임무는 기록하는 것,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다. 아에록은 인류 종말 50년 후 깨어났다. 그동안 보조 인공지능이 기록보관소를 운영해왔다. 차갑지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AuTX-3463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찾는다.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ScPa-942A는 지구에서 돌연변이를 만들고 키운다. 아에록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총괄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을 다시 만날 날을.

환경 문제와 인공지능.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재를 재미있게 엮었다. 너무 어려운 과학 이야기도 아니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도 아니다.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게 되나, 마지막에 다다르면 재미 외에 경각심도 느끼게 되는 소설이다. 세상에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다. 그것들에는 극악에 치닫게 하지 않을 골든타입이 있다. 지구의 골든타입은 ‘지금’일지도 모른다.

김윤지
보고 또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드는 UMZI Creative Lab.의 대표 창작자. 마케팅 리서치 연구원 출신으로 2021년부터 연극·SF 소설·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창작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가족 관계 속 불인과 외로움, 인간 이외의 존재, 근미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창작을 통한 경계 허물기를 지향합니다.



나라가 당신 것이니
김경욱 | 2021 | 문학동네

서재를 서성이던 ‘나라가 당신 것이니’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가 어떻게 개인의 소유물일 수 있지? 의아해하면서 책을 꺼내 듭니다. 띠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칠순 노인이 된 전직 요원에게 부고처럼 날아든 암호문/그분이 나를 부르고 있다”. 네, 이 책은 은퇴한 전직 첩보요원인 코드명 ‘라이카’가 자신의 부고를 위장한 호출 메시지를 받고서, 과거의 동료들을 모아 호출자인 코드명 ‘목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김경욱의 장편 소설입니다.

‘김감독’이라는 별명의 주인공 라이카는 ‘눈이 렌즈요, 기억이 필름인’ 능력이 있고, ‘김배우’라는 별명을 지닌 코드명 ‘피셔맨’은 고문 대신 침술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백 기술자, ‘김작가’라는 별명의 코드명 ‘재단사’는 ‘문청’으로서 공작 설계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발굴하고 성장시킨 직장 상사가 바로 코드명 ‘목사’인 ‘김실장’입니다. 이들은 ‘목사’의 흔적을 쫓아 좌충우돌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목사’는 북미 간 협상 결렬을 위해 미국 대통령 암살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도리어 ‘목사’에게 쫓기게 됩니다. 재단사가 희생되고, 피셔맨이 크게 다치고서야 어렵사리 ‘목사’를 만나지만 어딘지 정체가 모호합니다.

살아 있다면 백수^{ㅂㅅ}가 넘었을 테니 말이죠. 무엇보다 그가 정말 ‘라이카’를 호출했는지, 그가 실존 인물은 맞는지 소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득 등장인물들이 알레고리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새해가 됐지만, 우리를 분노케 한 ‘12.3 내란’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구국의 일념 운운하며 파렴치한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가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자들의 잘못된 정치 기획과 부도덕은 인과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우리의 분노 깊은 곳에는 잘못된 신념이 반복되는 이성 너머 이유가 궁금중으로 남습니다. 작가는 “소설의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조차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나라가 당신 것이라면, 당신은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생각은 누가 처음 짜놓은 것일까요? 후시 거기에 걸려든 건 아닐까요?

기획
학부 시절 연극을 공부했고, 소설을 습작하면서 ‘문청’이 되었습니다. 2010년 시인이 된 후, 2013년 문학평론가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집으로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기립 박수』, 『소피아 로렌의 시간』, 『다음 창문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를 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가)에 관한 오랜 관심을 되살리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 ‘리메로박스’에서 노조위원장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유선혜 | 2024 | 문학과지성사

1969년, 미국 예술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는 '세계 질문 센터'라는 제목의 예술적 기획 아래 과학자·예술가·지식인 등 100명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묻고 수집한다. 이에 벨기에 예술가 마르셀 브로타스는 전쟁과 기계의 이 이상한 세계에서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미술이론가 미갈 B. 룬은 2022년 12월 31일, 브로타스의 질문이 가진 시의성을 언급하며, 그 질문을 다시 던지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공란을 남기며 독자들에게 답을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독자가 한 번쯤 답을 생각하길 바라면서, 새해에 이 질문을 우리도 환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르셀 브로타스가 전쟁과 기계의 시대를 이유로 물음을 던졌다면, 2022년 미갈 B. 룬이 제시한 질문의 배경에는 팬데믹이 있다. 그럼 2025년의 세계는 다를까. 이 역시 의문을 가지며 앞선 질문들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사랑이니, 혹은 어떤 가치를 나누는 것이니 등에 대해선 오히려 더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하며.

2025년의 날씨는 이전보다 더 변덕스러울 것이며, 개인에게 내맡겨진 생존의 불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당장의 문제에 천착하게끔 내몰릴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장 퀴크 낭시의 문장을 다시 옮기자면) "여전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금 여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목전에 닥친 삶의 위급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역시 커다란 방향성의 궤도 위에서 어떤 가치들의 분투라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 시대에 유명무실해진 가치들, 예컨대 함께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면 어떨까. 작가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스스로의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묻는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이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선혜의 시집은 대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정기석
 "누구나 여름밤의 단내를 느껴야 한다"라는, 그의 문장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띄워두고 문학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구하고 있다. 연약한 존재들, 저 스스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이 서식하고 재용출할 수 있는 저류지에 대한 비평을 겨울밤의 흰 입김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연약을 위한 최저낙원』이라는 문학평론집을 냈다.



구덩이
 루이스 새커 저·김영선 역 | 2007 | 창비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라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문제는 그런 자괴감이 내 인생에 8할은 차지한다는 거다. 매번 마냥 쓸데없는 삼질만 해대는 기분이다. 이렇게 삼질하다 살짝 본 책의 한 줄, 짧은 영상 짤, 내 옆에서 같이 구덩이를 파던 가족이나 동료가 던진 유머 한마디에 다음 삼질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 살짝 인생이 살 만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2할밖에 되지 않지만.

어느 날 길을 가던 스탠리 엘너츠의 머리 위로 냄새나는 신발 한 켤레가 떨어졌다. 그 신발 때문에 스탠리는 불운하게도 '초록 호수 캠프'라고 불리는 이름과는 전혀 판판으로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은 소년원에 가게 된다. 이 모든 불운은 신발 때문이 아니라 신발 도둑인 조상님을 둔 덕이다. 저주에 가까운 불운으로 초록 호수 캠프에 가게 된 스탠리. 스탠리는 삼을 들고 하루 종일 땅을 파야 한다.

내 인생의 모든 불운은 내가 흡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인 걸까? 죄는 조상님이 지었는데 책임은

이번 생의 스탠리가 짊어진 것처럼? 저주에 가까운 불운으로 구덩이를 파야 하는 스탠리의 끝없는 삼질이 어찌 내 모습과 겹친다. 그러나 스탠리가 지닌 힘이 있다. 스탠리의 삼질에는 상냥함이 묻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삼질 덕분에 스탠리는 살이 빠지고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친구도 얻는다. 결국 사람들은 스탠리를 축복에 가까운 행운을 가진 자라고 부른다.

새해 계획 중에 다이어트나 운동을 빼놓을 순 없다. 우린 강력한 외모지상주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으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 책 100권 읽기 도전이나 영어 공부도 한 칸을 차지해야 한다. 우린 지성인이라는 자부심을 빼면 시체니까. 새해에는 그 계획 앞에 '상냥한'이란 단어를 붙여보길 권한다. 상냥한 다이어터, 상냥한 영어 초급자, 상냥한 신입사원, 상냥한 우울증 환자, 상냥한 갱년기 질환자 등등. 우리의 삼질이 조금 덜 힘들 것이다. 2025년 연말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함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렇게 우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간다.

하신하
 방송 구성작가로 일하다니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화계를 기웃거렸다. 『숨은 소리 찾기』를 발표하며 동화작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늘장군 김돌쇠』로 아코문학창작기금, 『힘센 천만금이』로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을 받았다. 천천히 썼으나 오랜 시간이 걸린 덕에 다수의 동화책을 출간하였으며, 『우주의 속삭임』으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시

시몬 베유 저·이종영 역 | 2021 | 리시울

이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12월 3일 내란이 벌어진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열흘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쏟아지는 속보 사이에서 일상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광장과 저의 작은 방을 오가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난삽함에 위로를 받다가도 그 안에서 또다시 소수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더 정교하고 진보적인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더 급진적으로 사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말과 글을 가로막습니다. 폭력은 우리를 언어의 이전 상태로, 말이 아닌 비명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되돌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어 이전으로 되돌아간 비명의 장소에서 언어를 뛰어넘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이 언어는 지배자는 가질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폭력은 말과 글을 가장 먼저 억압하면서도 결국엔 압제에 실패하고 맙니다. 말과 글은 본질적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아귀에 붙잡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고 쓰는 일은 당장의 폭력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시간을 거스르고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의 폭력을 사유하고 정지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저는 광장에서 고향을 지르다가도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의 추운 방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곤 하얏게 질립니다. 시몬 베유의 문장은 광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땀이 식어버리는 순간만큼 차갑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세계에 참여하는 일과 고독하게 사유하는 일이 얼마나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기대 없이 희망해야 할 때 시몬 베유를 읽습니다.

김연재

극작가. 무대와 희곡 사이, 문자와 말과 몸의 사이를 탐구하며 희곡의 가장자리에서 희곡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한다. <없는 시간>, <매립지>, <복도 굴뚝 유골함>, <낙과죽기> 등을 쓰고 공연했다. 지은 책으로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한쪽 발은 무덤을 딛고 나는 서 있네』가 있다. 이날치2집 앨범의 이야기와 가사를 썼다.



눈보라
톨스토이 저·구본희 역 | 2001 | 큰나무

이 책에 수록된 수필 ‘눈보라’와 ‘루체른’은 톨스토이가 28~29세 때 쓴 작품입니다. ‘눈보라’는 그가 눈보라를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한 말들, 마부들의 생기,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나타난 인물들의 묘한 이야기까지 현실과 이어 보여줍니다. 또 다른 수필 ‘루체른’은 스위스 루체른에서 만난 유랑 가수와 주변 인물에 관한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삶의 시를 찾으러 루체른까지 온 사람들, 자기 삶에서 다른 누구보다 인생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유랑 가수의 노래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 순간 시를 찾던 사람들. 노래를 마친 거지가 조금의 돈을 바라자 그들은 우스워하며 뒤돌아서 따뜻한 가정을 향해 돌아갑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을 호수에서의 사건, 노래를 부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던 나라. 그럼에도 노래를 불러준 가수에게 아무런 대가도 조금의 호의도 없이 단지 부끄럽게 했으면서도, 자신의 따뜻한 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던 문명의 행복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잠을 자고 같은 음악을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즈음에 읽었던 책입니다. 오류처럼, 원인 불명의 따뜻한 병 속에서 가만히 보내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안은 남의 웃음을 사기 좋을 병명입니다. 그들 또한 몰래 비슷한 밤을 보내며 비슷한 얼굴을 한 불안을 숨기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검은색을 동반한 주황빛이 함께 떠오릅니다. 이대로

계속 이 빛과 함께인 게 아닐까. 이 차갑고 따뜻한 빛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그 온도가 조용히 무섭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사람, 넘고 싶지 않은 산과 같은 그의 문학을 만나게 돼 삶이란 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은 겨울과 함께 찾아오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소리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봄을 준비하는 신년의 색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주영

잊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 계속 기억이 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와 섬, 마을, 모르는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며 여행기를 쓰고 오았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사람의 얼굴을 흉내 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받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해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만 좋은 것 하나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임선우 | 2022 | 민음사

이 책에 실린 단편 ‘집에 가서 자야지’에서 화자의 전 연인 조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화자는 실의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유를 묻지만, 조는 그것조차 거짓말로 대답한다. 어느 날 조는 반려 도마뱀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집주인을

통해 사라진 도마뱀이 윗집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와 화자는 도마뱀을 찾으려고 윗집을 방문한다.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주인에게 조는 화자가 청소업체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세 사람은 도마뱀을 찾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 최근 연인과 이별한 주인은 조와 화자의 방문이 내심 반갑다. 그들은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친구처럼 지낸다. 얼마 후 주인은 화자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그렇지만 주인은 화를 내지 않는다. 도마뱀을 찾으려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었느냐고 반문한다.

어떤 순간부터 조는 도마뱀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때마다 주인은 집에서 도마뱀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연장된다. 그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주인이 도마뱀을 보았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가 알아차린 순간이다. 조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 비록 도마뱀을 보았다는 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조와 화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였을 텐데 말이다. 가짜에 기반한 관계는 가짜일까? 진짜에 기반한 관계는 진짜일까? 그것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무엇에 기반한 관계인지 한순간에 끝나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임선우의 소설은 관계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남긴다. 나는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는 끝을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끝을 앞둔 상황에서는 시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를 여는 소설은 복잡한 질문이었으면 좋겠다.

이경현

희곡을 쓰는 이경현입니다. 저에게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추천한다는 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좋은 작품은 무수히 많겠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고민 끝에 제가 새해에 읽고 싶은 작품을 골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좋은 작품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에는 실금을 남기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얼음 속을 걷다
베르너 헤어초크 저·안상원 역 | 2021 | 밤의책

독일의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초크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독일 영화에 평생 기여한 평론가 로테 아이스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전화다. 그는 곧장 가방과 장화를 챙기고, 뮌헨에서 병원이 있는 파리까지 22일을 걸어갔다. 총 800킬로미터의 여정이었다.

유럽 횡단 열차가 활발하게 오가고 대형 여객기가 도입된 1974년, 그가 800킬로미터를 오로지 걸어서 지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걸어서 가면 그녀가 살아 있을 거라는 확신을 품고, 나는 최단 거리의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7쪽)

어느 시대의 눈으로 보더라도 헤어초크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견고한 불합리성은 역설적으로 저자의 결정을 (이해할 수는 없어) 응원하도록 만든다. 어떤 기적을 바라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리하여 고통스럽고 지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 이것은 결국 기도하는 마음과 닮았다. 많은 옛이야기 속 인물이 신에게 무엇을 바랄 때 자신이 지닌 것을 내놓겠노라 약속하는 모습도 연상시킨다.

나는 이 책을 제주도의 오래된 농가주택에서 읽었다. 12월 또는 1월—연말연시가 늘 그러하듯 이 시기의 기억은 뒤섞여 있다—이었다. 책장을 덮었을 때, 세상의 겨울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지나간 해와 다가올 해 사이에서 소원을 빌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기 위해 지나가야 할 고된 길을 상상했다. 동시에 그 길이야말로 예기치 못한 기적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남몰래 기대하기도 했다. 마침내 파리에 도달한 헤어초크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오래 걸은 뒤에 “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법이다.

함윤이

소설을 쓰고 책을 편집한다. 허구의 이야기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사가 여러 시공간을 거치며 변하고 왜곡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2025년 목표는 그간 쓴 소설을 책으로 묶는 것이다. 202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되돌아오는 꿈’이 당선되었으며, 2023년 제4회 젊은작가상, 2024년 제4회 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대중을 압도한 '이야기의 맛'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을 강타한 고전의 '아는 맛'을 되새겨본다.

↑ 연극계 거장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은 손진책 연출 <햄릿> ©신시컴퍼니
→ 조승우의 데뷔 첫 연극으로 주목받은 신유청 연출의 <햄릿>은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예술의전당

아는 맛이 무섭다. 2024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열풍'이 증명해 보인 명제다. 지난해 국내 연극 무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공연들은 다름 아닌 영국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7세기에 쓴 목격한 희곡이었다. 무려 쇼트폼(short-form·웹툰 등 짧고 자극적인 새 콘텐츠가 '도파민 중독자'를 압도한 세상에서다. 고전의 '아는 맛'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주됐기에 오늘날 대중의 구미를 당겼는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공연된 조승우 주연의 <햄릿>(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연출 신유청)은 셰익스피어 열풍에 종지부를 찍었다. 굵직한 출연진을 앞세운 셰익스피어 연극이 줄기차게 열리면서 "또 셰익스피어나"는 관객 푸념이 나왔음에도 흥행을 거둔 것. 총 23회 공연은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관객 21,300명을 모았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황정민 주연의 샘컴퍼니 <맥베스>(2024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출 양정웅)가 약 1,200석 규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유료 객석 점유율 99%를 냈고, 신시컴퍼니가 제작한

<햄릿>(2024년 6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연출 손진책)은 약 700석 규모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중장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고전 연극은 "평소 연극을 자주 보지 않는 관객 눈길도 끌었다". 제작사들의 전언이다. 이는 소위 '스타 배우'가 출연하지 않은 작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서 잘 드러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7~9월) 대중음악과 뮤지컬을 제외한 공연 티켓 판매액 1위와 3위는 각각 샘컴퍼니 <맥베스>와 신시컴퍼니 <햄릿>이었다. 후자의 경우 정통 연극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중장년층 발길까지 모았다. 인터파크티켓에 따르면 예매자 중 40~50대 비율은 48%에 달해 공연시장 큰손인 20~30대 비중(41%)을 넘어섰다. 국립극장 기획 <맥베스>(2024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연출 김미란)는 잘 알려진 고전에 수어와 판소리를 결합한 독특한 연출법이 화제가 되면서 객석 점유율 98.9%를 냈다. 유료 객석 점유율 역시 91%에 달했다.



왜 지금 셰익스피어일까. 전문가들은 셰익스피어가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이유를 그만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현대 문화 속에서 찾았다. 엄현희 연극평론가는 “자극적인 콘텐츠 속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친숙한 이야기를 반복해 음미하고 싶은 정반대의 욕구를 무대에술이 해소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셰익스피어 작품 속 주인공들은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진 가운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인물로, 오늘날 기후 위기, 정치 투쟁,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호소력을 갖는다”고 했다.

셰익스피어 희곡은 ‘드라마의 정수’로 불릴 만큼 서사의 기승전결과 갈등 구조가 뚜렷하다. 19세기 안톤 체호프의 희곡 ‘벚꽃 동산’ 등이 일상성을 앞세우는 것과 대비된다. 내면의 폭풍우를 돌파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격랑은 동시대 콘텐츠의 서사를 뛰어넘는다. 이는 “이야기로 회귀하자”는 최근 대중의 요구와 연결됐다. 이은경 연극평론가는 “국내 연극계에 10여 년간 이어진 ‘포스트 드라마’ 기조로 연극성 강화에 집중하면서 이야기의 힘이 약해졌다”며

“관객이 셰익스피어를 다시 소환하는 건 드라마가 있는 연극을 갈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맥락을 더욱 깊이 있게 담은 예술의전당 토월경통연극 <햄릿>이 그 대표적 사례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햄릿>이 관객 이해도를 높이고자 유럽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처내던 그간의 전략과 대비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당대 종교 개혁과 관련한 대목, 노르웨이 포틴브라스 Fortinbras 왕자의 비중이 커졌다. 포틴브라스 왕자는 햄릿과 마찬가지로 친부가 살해당했으나 좌절감, 복수심에 침잠하기보단 앞으로 나아가는 캐릭터다. 구약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결국 실패한 햄릿을 서사적으로 더 치밀하게 표현하는 데 노력했다.

이는 맛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주된 조리법을 음미하는 재미도 크다. 희곡 원작은 출판사·번역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공연에서는 더 적극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극작가 배삼식이 각색한 ‘햄릿’은 한국어 말맛과 고유한 아름다움이



↑ 수어와 판소리가 만나 완성된 국립극장 기획 <맥베스> ©국립극장
← 황정민의 열연이 돋보인 양정웅 연출 <맥베스> ©샘컴퍼니

물씬하다. 3막 1장의 대사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맘속으로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난의 바다와 맞서다가 끝장을 보는 건가?”(민음사, 2024)는 극 중 “잔인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묵묵히 참고 견딜 것인가, 밀려오는 고힬의 파도에 맞서 결연히 싸우다 쓰러질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로 재탄생했다.

특히 최근 대본들은 원작 서사에 충실히 따르되 시대착오적 요소를 동시대에 맞게 다듬어 관객 입맛을 만족시켰다. 전근대적인 대사, 캐릭터를 줄이고 배경 설정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식. 지난해 7월 공연된 국립극단 <햄릿>(2024년 7월 5일부터 29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연출 부세롬)은 성차별적 요소를 대거 들어내 젊은 관객 환호를 샀다. 햄릿을 해군 장교 출신 공주로 설정했고, 상대역 오펜리아는 기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꿨다. 여성 비하적 대사도 뺐다. 부세롬 연출가는 “성별을 넘어 단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작품의 본질을



보여줄 방법이라고 봤다”고 의도를 설명했다.

이은경 평론가는 “과거 공연들은 실험적인 형식을 취하거나 캐릭터성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고전을 재해석하곤 했다. 고전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라며 “반면 최근 공연계는 현대적으로 각색하되 원작의 드라마에서 멀어지지는 않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서사적 요소는 더욱 치밀하게 접근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쉽고 간편한 놀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고전 희곡은 얼핏 장황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유하는 인간이 있는 한 고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에 무게를 싣고 싶다.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관객은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한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프로듀서는 다소 과감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했던 <햄릿>을 올린 뒤 이렇게 밝혔다. “극적 서사, 근원적 욕망은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관객은 저마다의 해석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며 유희하고 성장한다. 고전에는 그런 힘이 있다.”



독서로 매개하는 새 문화

#독서모임 #텍스트힙

한 권을 이루는 책장의
겉만큼이나 책이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자신을 뽐족하게
들여다보고 한편으로는 나의
세계를 넓히는 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탐구했다.

다름과 같음 사이,
책으로 세상을 넓히는
시간

이유진 트레바리 클럽장 유닛/피플 셀러디

독서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할 지 벌써 반년이 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인문·문학 책을 시간 내서 읽는다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 세상이 따라잡아야 할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니 꼭 바쁜 현대사회에
사는 내 탓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읽어야 할 책,
파야 할 영화, 알아야 할 트렌드와 뉴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의 취향까지. 마치
하나라도 놓치면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게다가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까지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 인문학·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이메일·메신저에
치이다보면 퇴근 후에는 글자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게다가 누가 추천한 ‘좋은
책’이라면? 더 잘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훨씬 더디게 책장을 펼치게 된다. 독서를
시작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쩌지?’, ‘이 책을
계속 읽는 게 맞는 걸까?’ 같은 생각이 든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름 책·독서모임과 관련한 일을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위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 독서모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나조차도 인문·문학 책을
자주 많이 읽는 게 쉽지 않다. 둘째, 책이 어렵고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당황스러움을 남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남들은 좋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말해도 충분하다. 놀랍게도, 꽤 자주 누군가
“저도 그래요”라며 다가오는 일이 생긴다.
그때부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공감의
시작될 것이다.

독서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올해 초
런던에서 반년 정도의 방학을 백수로 보내면서
만난 전시《Summer Exhibition》을 떠올린다.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Arts에서

개최하는 이 전시는 176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개 공모 형식의 예술
전시회다. 이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명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의 작품이 동일한
공간에 나란히 전시된다는 점이다. 작가의
이름도, 작품의 제목도, 가격도 벽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번호표만 붙여 있을 뿐이다.
이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판매가가 얼마로 예상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따로 전시 도록을 구매해야만
한다. 나는 사람들이 작품을 그 자체로 느끼고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그 시공간이 참
좋았다. 같은 작품도 누군가에는 거실에 걸기
딱 좋은 그림이고, 누군가에게는 색감이
불편한 작품이며, 누군가에게는 20~30분씩
서서 보게 되는 명작이었다.

인문·문학 독서모임을 통해 만난 가장 인상
깊은 순간들도 ‘유레카!’ 하는 깨달음이 있거나,
복잡한 철학 개념을 이해한 순간은 아니었다.
오히려 런던 미술관 한구석의 시공간처럼,
본인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감상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이
더 소박하고 귀했다. 예전대 이런 순간들이다.
같은 책을 읽고 만난 자리지만 누군가는 “저는
이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작가님의 표현 방식에
공감이 잘 안돼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을 때.
예전에는 예측 불가능성을 싫어해서 스포일러
없이 영화·드라마도 보지 않던 내가 이제는
나와 다른 의견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고 싶어서
시작한 독서모임이, 이제는 동질감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이 주는 신선한 기쁨까지 느끼게
해주는 자리로 변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나는 이 독서모임이라는 공동체에
섞여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갈수록
자신감을 얻는다. 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고,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을 거라는 안도. 이곳을
찾아온 스스로에 대한 칭찬.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처럼, 문학은
“타인의 폐부까지 흘러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한다. 폐부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아프고, 낯설고, 불편하게 들리지만, 그 점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인문과 문학을 주제로

독서모임을 하고,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정답이 없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틀리지 않았고, 상대방도
틀리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은 매번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낄 때,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흥미롭고 가치 있는지 쉽게 깨닫게 된다.

효율과 유용성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기,
무용해 보이는 것들이 나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그들의 생각을 존재로서
인식하고,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유용함’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용해 보이는’ 책들을
읽는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타인의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믿으며, 책을 통해 얻는
이 느슨한 연결은 때로 나를 새로운 질문으로
이끌고, 다른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믿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조금
더 잘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리고 나눈다. 때로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많은 경우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넓혀가면서 말이다.

보는 책, 읽는 책, 먹는 책

김민희 톱클래스편집장

확실히 지하철 풍경이 달라졌다.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늘었다. 그것도 2030 젊은 층에서.
며칠 전에 이용한 5호선에서는 한 칸에서만 다섯
명이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고 있는 걸 발견했다.
무슨 책일까 궁금해서 (최대한 티 나지 않게)
들여다봤더니 셋은 소설, 둘은 경제·경영서를
읽고 있었다.

‘책 읽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는 ‘텍스트힙text-hip’.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던 텍스트힙 유행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정점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내가 편집장으로 있는 심층
인터뷰 매거진 ‘topclass(톱클래스)’의 2024년
12월호 주제를 ‘텍스트의 힙’으로 정한 건 이런
시류를 감지해서였다. 맛있게 느리며 여백이
많은 텍스트가 왜 다시 주목받는 것일까. 영상
매체 홍수의 시대, 오래된 것이 다시 주목받는
이 부조화의 현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었다.

텍스트힙의 본질은 ‘나다움’이다. ‘나는 너희들이
잘 모르는 책을 읽고 있어’ 하는 자기만의 취향의
세계.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것은 힙이 아니다.
‘힙’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도
적지 않게 들여야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질문에 “클래식(음악)이요”라는
답변과 “사티의 짐노페디Gymnopaedia
1번이요”라고 답하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질문에 “아메리카노요”
하는 사람과 “톨 사이즈 플랫폼이트에 샷 하나
추가, 바닐라 시럽은 한번만”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다른가. 섬세하고 뽐족한
취향이 있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알기 위해 추수를 안으로 뺀고 꾸준히 자신을
탐색해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내면은
부요하다.

이 질문을 책에 해 본다.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인생 책은 무엇인가요?” “최근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남는 책은요?” 책에
대한 취향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욕망과 결핍, 지향하는 가치와 취향의

결을 통째로 묻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책에
관한 질문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다.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에게 이 질문은 마치 일지장의
가장 구석을 보여달라는 말처럼 선을 넘는
질문일 수 있으므로.

어떤 텍스트는 보고, 어떤 텍스트는 읽으며,
어떤 텍스트는 먹는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담긴 텍스트는 ‘본다’. 정보와
지식을 위해 접하는 짧은 단락의 콘텐츠는
‘읽는다’. 하지만 소설과 긴 호흡의 에세이,
인문·경제·과학 서적은 ‘먹는다’. ‘보는’
텍스트는 뇌를 상하게 만들고, ‘읽는’ 텍스트는
수동적 뇌를 활성화하며, ‘먹는’ 텍스트는 능동적
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텍스트를 먹는다는 것은 텍스트를 꼭꼭 씹어
나의 것으로 흡수하는 독서를 말한다. 저자의
사유-কে적을 따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먹는 독서는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읽기 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려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박제사’
같은 독서가 아니라 ‘요리사’ 같은 독서를 해야
한다. 알베르트 망구엘Alberto Manguel은 “이상적인
독자는 텍스트를 절개해서 껌질을 들어내고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 동맥과 정맥을 일일이
추적해서 완전히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번역가”라고 했다. 긴 호흡의 책에는 필연적으로
저자가 오랫동안 숙성해온 질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 질문을 보물찾기하듯, 퍼즐 맞추듯
찾아서 읽다보면 그 과정에서 사유의 힘과
상상력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많이 읽으면 자아가
확장된다. 책이라는 공간은 저자의 사유와 나의
사유가 만나는 내밀한 광장이다. 그 광장에서는
책을 펼치기 전에는 상상도 못 한 사유가
피어나고, 그 사유는 다시 세계로 뻗어 나와 내가
속한 세계에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여기에
문학과 책의 윤리적 기능이 있다. 긴 호흡의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타인을 함부로
채단하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작지만
분명한 증표가 아닐까.

문학 텍스트를

통해 모일 때

낯선 시도들을 초대하는 문학 중심 웹진 [비유], 플랫폼의 역할을 고민하는 담당자의 기획·운영 노트 일부를 살펴봤다.

온라인 플랫폼 [비유]는 매월 2회씩 작품을 발행하며 공공/퍼블릭public에 닿아 있다고 감각하고 있고, 또한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 이곳에서 작가들은 각자 상상력과 영감을 배양하고 펼치고, 서로 의견과 지식을 교환한다. 여러 주체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는 [비유]는 또한 누구든지 그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개방성과 환대를 지향한다. 현실 사회에서 문학과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며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사적·공적 기억을 생성, 공유, 저장한다.

장소로서 웹진 [비유]는 문학과 언어 텍스트 기반의 작품을 면밀히 창작하고 읽을 의향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작가와 독자는 이곳에서 언어 텍스트로 구성된 예술 작품을 쓰고 읽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발휘한다. [비유] 기획·운영 주체들은 공간적 상상력과 물질에 대한 구체성까지 언어로 담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언어 텍스트 기반의 협업 결과물도 발행하며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협업 결과물이 그 자체로 예술 텍스트이면서 문학예술의 활력이고 자양분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자들은 주제, 인물, 이야기의 전후, 출판의 안팎 등에 대해 꼼꼼이 생각하는 시간을 들인다. [비유]는 1년에 6개 호를 발행하며 이 사려 깊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웹진 [비유]는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되, 또한 낯선 시도들을 초대하는 지면으로서 포용성을 가지고자 한다.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기존 문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까지 골고루 아우르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주선하기도 한다. 이는 삶과 문학의 연계 속에서, 그리고 현실사회 맥락 안에서, 개별 문학 작품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으로도 느슨하게 이어진다.

[비유]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여럿이다. 먼저 이 지면을 만드는 사람들, 즉 편집위원, 편집자, 디자인팀, 퍼블리싱팀,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이라는 주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듯, 지면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듯,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비유]를 만든 편집위원과 담당자들의 생각이 담긴 문장을 읽고 그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 가령 언어 기반 창작물을 다루는 매체지만, “언어가 되지 못한 마음들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말도 각별히 귀 기울여 새겼다.

또한 지난 2023년 봄 개편 전후로 독자층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한 시도도 병행해왔다. 다른 매체와 장르의 예술 영역에서 공부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전해 듣는 경우도 잦아졌다. [비유] 발행 원고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을 하는 독자들의 활동을 유연히 알게 됐을 때도 무척 반가웠다. 온라인 플랫폼 [비유]는 발행 원고를 모아 선집 형식의 출판이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의 형태도 꿈꾸며, 장소로서의 이후와 다음을 계획하고 있다.



웹진 [비유]
웹진 [비유]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발행된다. 웹사이트 첫 화면 하단에서 구독 신청하면,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sfac.or.kr/literature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신유청, 물처럼 흐르는 연극을 꿈꾸다
- 예술인 아카이브
전지영
윤향로
- 페이퍼로그
정보관리팀 김형규
- 인사이드
서울예술인NFT
노들원터페스타
-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
트렌드
독일 문화예술계, 안녕한가요?

신유청,

물처럼
흐르는

연극을
꿈꾸다



연출가 신유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그가 무대에 올린 작품의 목록일 것이다. 시간을 점프하며 입센의 인물들과 둘러싼 세상을 확장한 <와이프>²⁰¹⁹, 그리스비극을 닮은 가족사에 레바논 내전의 참상을 투영한 <그을린 사랑>²⁰¹⁶, 세기말 미국의 혼돈을 21세기 서울에서 감각하게 해준 <엔젤스 인 아메리카>²⁰²⁴... 중·대극장에 연극을 올리면서 작품의 흥행과 내용적 성취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관객과 평단이 모두 차기작을 기다리는 연출가는 귀하다.

최근 성북구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만났을 때, 그는 조승우가 주연한 <햄릿>²⁰²⁴의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바로 사흘 뒤부터 연극 <테베랜드>²⁰²⁴의 새 시즌을 시작해 궤도에 올려놓은 참이었다. 이 센터의 2025년 3월 개관 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출가의 시선'을 주제로 한 강연도 앞두고 있었다.

강연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가. 연극 연출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 연극이 뭘까, 이런 고민을 같이하고 싶다. 수업을 하면 기능적으로 무슨 '연출 비법' 같은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 말고, 연극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연극을 떠나지 못하는지에 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왜 연극이 좋은 걸까. 공연을 올리고 제일 기분 좋은 때는, 공연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나눈 매우 많은 이야기 안에 관객들의 감상평이 놓여 있을 때다. 공연 전 두 달여 배우와 스태프의 노력은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관객의 사유가 담긴다. 우리가 만든 세계를 관객들은 언어화해 평을 쓰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을 만나는 순간은 늘 경이롭다.

관객 평을 참 소중히 여긴다. <그을린 사랑> 공연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속제 내듯 A4 용지 1장 넘는 긴 관객 평이 여럿 나왔다. '표현하고 싶은 삶의 무언가를 읽어 갔구나', '연극을 통해 무언가 순환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다. 작가는 한 여인의 인생을 쪽 읽겨와 연극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수행하는 매신저였고, 관객들이 그걸 읽어낸 거다. '아, 되게 아름다운 선순환이다' 생각했다.

연극이란 순환하는 것? 마치 비가 내리는 것, 물의



순환과 같다고 생각한다. '상선약수 上善若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작가에게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번에 한강 작가가 말했듯 그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작가의 일이다. 그 언어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가장 약한 사람에게로 간다. 또 물은 흐르면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땅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깨끗이 하면서 흐른다. 그 지나간 곳에 식물의 싹이 트고 동물이 마신다. 물은 계속 더러워지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냇물과 강물이 바다로 도착하면 태양 빛을 받아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연극도 비슷한가? 결국 우리는 전부 그 안에 있다. 작가가 이 세계를 관찰해 써낸 것과, 연극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있다. 실은, 연극 만드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삶의 언어를 배우고 해내느라고 고통스럽고, 두 달간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무대 위에 제물처럼 올라가는 거다. 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지 않다.

물처럼 흐르는 연극이라니. 연극이라는 물의 방향을 바꾸거나 고이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오히려 통로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 작품을 통해 연극이 관객에게 잘 흘러가고, 관객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연극을 통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치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겠구나' 생각한다. 극장에는 스피커가 있다. 좋은 스피커가 되려면 잘 비어 있어야 한다. 배우도 나도 좋은 스피커처럼 잘 걸려 있는 통로로써 존재해야 한다. 근데 살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 공연 통해서 떠나지, 뭐 이런저런 욕망에 매일 수박에 엮인다. 그러다 작품이 휘어지고 고이게 되는 것 같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잘 매달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걸까?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런데 배우들은 지나치게 자기 존재 이유를 묻는다. 등장 이유, 이 대사를 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연출은 설명해줘야 하는데, 본인들 살아가는 이유는 모르면서 등퇴장과 대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딱 떨어지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없다.

이 세상 속 연극의 말

그렇게 보니 삶과 연극이 닮았다. 배우들을 만나며 연극을 한다는 것이 사는 것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됐다. '나의 삶은 이러저러해서 의미가 있어'. 그렇게 내 존재의 의미가 딱 차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반면 내 삶이 내동댕이쳐진 것처럼,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때도 있다. 결국 연극은 의미를 찾는 일이다. 정말 좋은 희곡은 티끌처럼 작은 어느 지점에선 작가가 왜 이걸 썼는지 찾아낼 수 있다. 침포 하나, 빈칸 하나로 의미가 발생한다. 그래서 재공연이 좋다. 처음엔 잘 안 보이던 의미가 재연, 삼연 하다보면 작가가 그렇게 쓴 이유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내가 놓친 것과 실수한 것들을 만나고, 작은 메시지, 침묵, 사이, 침표, 줄임표, 느낌표 같은 데서 작가의 설계가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그 의미를 위해 고통을 견디나. 연극 속에선 내가 일찍 죽어도 커튼콜에 다시 살아나서 관객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을 참아낼 수 있고, 신나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살아보고 돌이켜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엔딩에 미리 가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커튼콜 때처럼 적도 친구가 되고, 그렇게 다시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음'에 휘둘러 무의미로 빠지기도 하고, 잠시의 행복에 매달리기도 한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걸 감각할 수 없다. 너무 거대하니까. 하지만 연극은 지구가 돌고 있구나, 둥글구나 하는 걸 두세 시간 안에 느끼게 해준다. 마치 유사 전능성을 감각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렇다고 연극이 완벽히 삶인 것은 아니다. 나는 연극이란 완성도 면에서 늘 떨어지는, 부족한 작품 만이 무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어떻게든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삶에 비해서는 늘 모자라고, 유사품이니까. 게다가 충분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데도 관객들은 또 그걸 좋아해준다.

불완전해서 더 애뜻한 것일 수도 있겠다. 사실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햄릿을 연기했을 때 관객이 환호와 찬사를 보낸다



해도, 본인 마음속에는 내가 완벽한 햄릿이 아니라는 걸 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만 관객은 그렇게 바라봐주고, 햄릿 대신 찬사를 받는 거니까. 무대 위 배우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관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겸손은 요즘 귀한 미덕이다. 나는 이번 〈햄릿〉 때 조승우 형 커튼콜을 보는 게 좋았다. 형이 내려올 때 하는 손짓이 있고,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이는 걸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다. 그때 그 감정이란, 모두가 완벽하다고, 진짜 햄릿 같다고 하지만, 승우 형 마음에는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다. 집에 가면 또 머리를 싸매고, 엄청나게 메시지를 보내온다. 작가와 얘기해서 또 수정한다. 내가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생각할 때조차, 공연 중에도 승우 형은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란 본래 존재의 무언가를 비추고 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미완성의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아닐까.

햄릿, 다시 하고 싶은가. 공연은 아이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일단 무대에 올려놓고 나면 성장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 억지로 고치려 하면 뒤를릴 수도 있으니까.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다. 아예 모르고 부딪치는 것과, 이미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은 또 더 힘들다. 그런데 〈테베랜드〉나 〈빈센트 리버〉²⁰²¹처럼 한 시즌이 끝나면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공연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는 한번 끝나면 끝이지만, 연극은 다시 곱씹어서 볼 수 있다는 것, 레퍼토리가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다. 〈햄릿〉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한테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세월이 지난 뒤면 좋겠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면, 부족한 부분,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무대도 채우기보다 비우는 쪽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려면 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한참 연극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시절, 우연히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라는 지원사업 공고를 봤다. 나이 제한이 40세, 딱 막차였다. 마지막으로 지원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 연극과 연을 끊고 허송세월하다보니, 연극에 대한 다른 시선들이

들어왔다. 이야기의 본질에 집중하는, 잘 들리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건 잘 들리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 예전엔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나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 사람에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들리는 연극을 해 보고 싶다’는 콘셉트로 지원했다.

보이기보다 들리는 연극이라니. 시각적으로 현란한 것들은 사람을 현혹하지 않나. 정말 깨끗이 비워진 가운데 잘 들리는 연극, 결국엔 침묵이 주는 진리를 만나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참 막연한 얘기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뽑아주셨다. 매달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 30만 원 주어졌는데, 온통 책, 특히 종교서적을 엄청 사서 읽었다. 그러던 중에 총무로 대한민국장에서 혼자 영화 〈그을린 사랑〉을 보고 명동까지 터덜터덜 걸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연극 〈햄릿〉이 끝난 뒤 텅 빈 객석에서 바라보던 침묵을 기억했다. 〈그을린 사랑〉은 고통스러운 운명 속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순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의 이야기다. 대본을 구해 읽고, 작가에게 연락한 뒤 혼자 라이선스까지 해결해서 20분짜리 쇼케이스를 했다. 끝나자마자 심사위원이던 고선웅 연출님 말이 기억난다. “아, 나이거 더 보고 싶다.” 그 말이 너무 기뻐다.

그 말이 연극쟁이 신유청을 되살린 셈이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들이다. 그때부터 굉장히 넓어지더라.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면 왕립발레학교 입학할 허가받고 복싱장에 온 빌리에게 코치가 말한다. “이제 네가 여길 떠나면 여기서 네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될 거야”라고. 모든 순간이 계획해서 된 것도,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전에는 연출가의 선택이 전부 옳아야 하는 연출을 했다면, 〈그을린 사랑〉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통해 연극이라는 사건이 펼쳐지더라. 안무가 이소영, 의상 디자이너 홍문기, 번역가 겸 조연출가 김진숙, 음향 디자이너 지미세르, 조명 디자이너 강지혜처럼 함께해주는 분들을 만났다.

신유청 연출 하면 ‘소수자’, ‘운명’, ‘비극’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 코미디를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내가 해온 작품이 공통으로 인간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건 맞다. 왜 인간은 사는 동안 이렇게 고통을 통과해야만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가를 묻는 것 같다. 특별히 소수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니까. 그러고보니 그 한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동안 해온 작품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연극을 하는 우리한테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작품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연극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나. 싸움꾼 기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지금은 세상과 싸우기보다 메시지를 발신하는 쪽을 원하는 것 같다. 누굴 바꾸려고 하면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게 된다. 그보다 연극은 경험인 것 같다. 책은 책으로 끝나지만, 연극이라는 양식이 너무 좋은 건 그 이야기를 살게 해주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신화이든 철학이든 말하는 것들은 결국 인간 사이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경험 안에 다 존재하더라. 경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연극은 그렇게 의미 없이 떠돌던 말들에게 집이 되어준다. 그래서 앞서 말한 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 집 없이 떠도는 말들인데, 연극 무대에서 그걸 마찰과 갈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준다.

나는 연극을 보고 사람들이 나누는 게 싫다. 연극이 좋은 건, 커튼콜 때 함께 박수를 보내듯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다는 것 같다. 갈대를 보라. 하나만 흔들리지 않는다. 다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갈대숲이 되고, 거센 바람을 견딘다. 공연은 관객이 와서 함께 본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다. 연극 하는 사람으로서 큰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공연이 평화를 이뤄내는 일이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동등한 존재구나, 함께 있는 존재구나, 함께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가 연극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인 것 같다.

장소 협조 |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거점 시설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한다. 연극 단체와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5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성북구 성북로 8 | 02.758.1607

전지영

문학/소설

@jeonz0

2024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 소설 쓰는 전지영입니다. 저는 2023년 조선일보·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면 등단 3년 차 작가가 되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2년간 발표한 단편 소설을 묶어서 소설집 『타운하우스』를 출간했습니다. ”

“ 제가 첫 단편 소설을 쓴 건 서른셋 즈음이었는데요, 이미 그전부터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을 뿐이었지요. 저는 첫 단편 소설을 쓰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로소 소설 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자각한 순간이 바로 ”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쓴 소설은 문장이나 형식이 엉망이었지요. 소설을 쓰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를 때였어요. 첫 소설을 쓴 이후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어떤 예술 장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술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등단의 문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꽤 긴 시간 각종 공모전과 신춘문예에 낙선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소설을 쓴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긴 습작 시간을 이겨내는 계기와 동력이 돼주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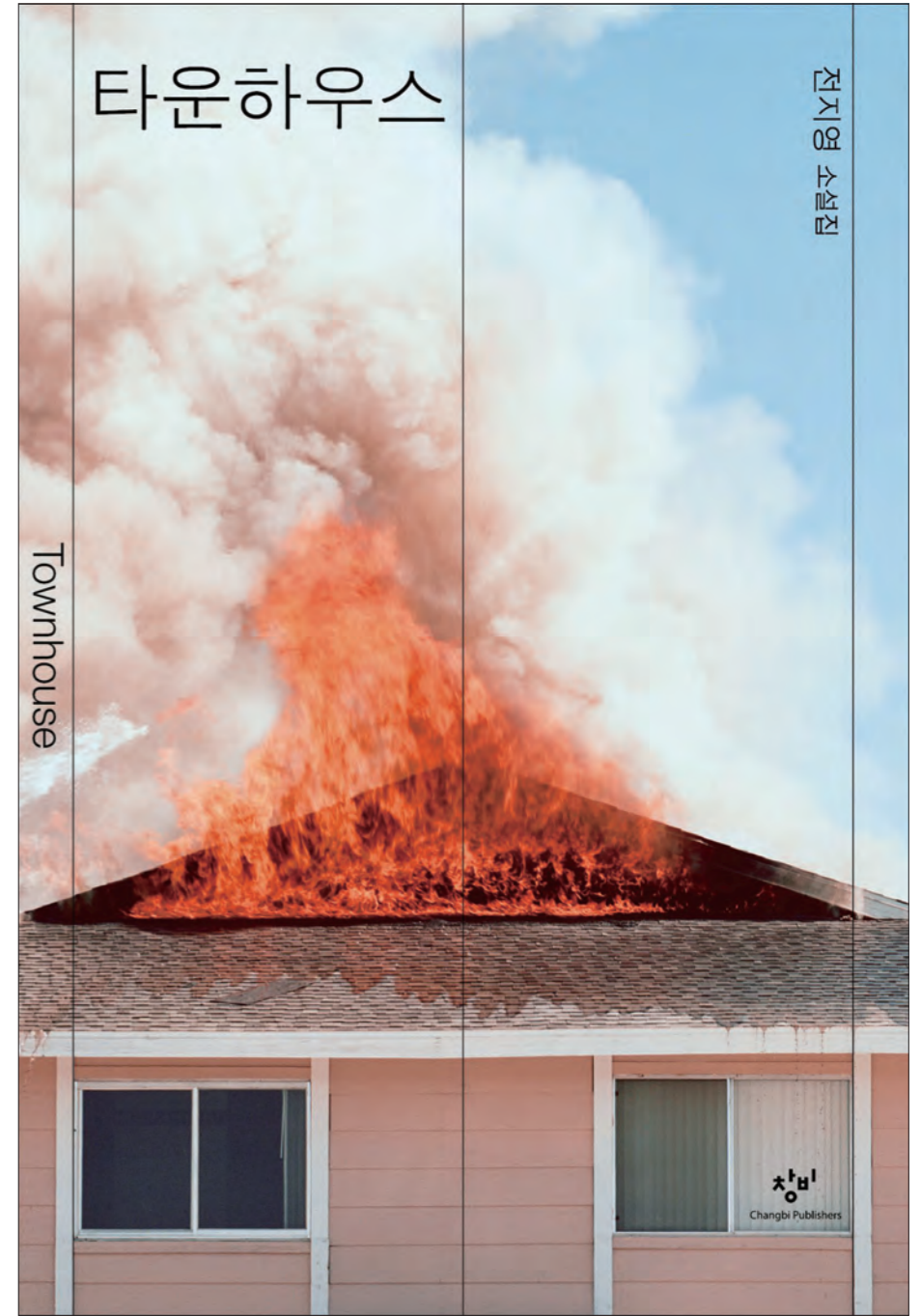
“ 사실 소설을 쓰기 전에도 서사를 나르는 다양한 ”

장르 중 유독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모두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지요. 부모님은 제게 ‘이런 책을 왜 읽냐?’ 혹은 ‘이 책은 내가 읽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내버려두셨지요. 제게 독서할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겠다고 결심한 건 어쩌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

“ 모든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낍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상당수가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쓸 때 실패와 좌절은 아주 값진 재료가 됩니다. 어쩌면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 2024년 12월에 출간된 소설집 『타운하우스』는 제가 등단한 뒤 발표한 여덟 편의 단편 소설이 실린 책입니다. 책에 실린 작품은 오늘날 사회의 계급, 폭력 문제 앞에 선 인간의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싸워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제 소설이 긴박하고 서늘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저와 평소의 저는 몹시 다른 사람 같다는 말을 듣는데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긴장감과 불안이 그런 리듬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

“ 저는 주로 공간에서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제게 공간은 하나의 인물과 다름없습니다. 첫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도 독특한 공간, 이를테면 관사·타운하우스·어서장 등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의 특성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궁금증을 일으키는 공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이 품은 사연은 인물의 사연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폐허나 재난 후 재건된 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Townhouse

전지영 소설집

“ 작년 초 런던에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들었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공연장을 종종 찾긴 하지만, 그날의 기분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전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언어가 없는 예술 장르에서 감동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 감각을 말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를 동원해야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언어에서 받은 감동만큼이나 ”

↑ 소설집 『타운하우스』(2024) 표지 ©창비

“ 또렷한 감동을 전달받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죠. ”

“ 장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재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생존자의 삶을 쫓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고통에 대한 타자의 윤리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설이 잘 쓰이길 소망합니다. ”



윤향로

시각예술/회화
b.1986
@yoonhyangro
yoonhyangro.com
2024 금천예술공장15기 입주작가

← 지난 12월 신당동 미래빌딩에서 열린 <윤향로: Mirae> 전시 전경

“저는 서울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특히 회화 매체에 대해 고민하고 작업하는 윤향로입니다.”

“2008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2012년 개인전을 개최하며 예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교육으로 접하기 시작한 것은 네살 때부터이고, 이후 다양한 방식의 미술 수업을 들으며 막연하게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첫 개인전을 할 때도 작가라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단어에 책임감을 가지려고 애쓰는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의 인연은 2019년 처음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예술창작활동지원·창작예술공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요. 2024년에는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선정돼 1년 동안 금천에서 지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스스로도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로 크게 (제가 예술가임을) 자각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족이 생기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며 마음속 (예술가의) 비중이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시작한 개인전 <윤향로: Mirae>에서 천장화 형식의 캔버스 회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회화 매체 중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좋아하며 탐구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캔버스 위에 잉크젯으로 인쇄가 된 레이어, 물감을 분사해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 표면과 레이어를 다루는 태도 등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장화도 19×8m가 넘는 분절된 캔버스를 천장에 설치하며, 보는 방식과 회화의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시기별로 창작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일본문화사를 통해 제가 성장한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문학가의 창작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마음속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테드 창^{ted} Chiang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속 ‘네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니 빌노브^{denis} Denis Villeneuve 감독의 영화 <컨택트>입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네살 아이를 데리고 현대무용 공연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창작 공연이었는데, 아이와 같이 이런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뻛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열린 제 개인전에서도 작게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천장에 작품을 설치하며 홍민희 테크니션과 설치 팀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을 천장에 중력을 거슬러 설치해주세요’라는 터무니없는 문장으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천장에 설치를 해 보니 너무 어렵지만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규모가 있는 회화 작업을 더 실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회화 실험도 지속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회화의 재료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보관리팀 김형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정보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규입니다. 2023년1월에 입사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현재 직원 업무시스템과 아카이브 기록물 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IT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제 전공은 실용음악입니다. 학부 시절 국악과 EDM을 콜라보레이션하는 실험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 기획안 작성,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준비, 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기니 재밌고 성취감도 생겨서 동기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음악 관련 기획 업무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원 콘텐츠 운영, 오디션 화면 기획, 음원 아카이브 시스템 기획 등 음악 분야 업무만 해오다가 음악뿐만 아니라 폭넓은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음악을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고등학교 때 합창동아리 공연이나 행사에서 선배들이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노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에는 가요제에서 입상하거나 기획사 오디션에 도전할 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스스로 찾아보고 연습하다보니 실력이 늘었고,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학 실용음악과 진학까지 이어졌네요.

지난해 말에는 디지털 싱글도 발표했다고요. 12월 16일, 특별히 제 생일인 이날 정오에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제목은 '꿈에서라도'입니다. 이별한 지 며칠 지난 날,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작업했으니 한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과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인상적인데요. 재단 입사를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문화재단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무용·시각 등 장르와 예술교육 등 방대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저 또한 틀에 박히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입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어떤 분야든 기획을 잘하려면 폭넓은 시야에서 오는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꼭 참여해서 이런 건 참고해야겠다 싶은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남겨두는 편입니다.

정보관리팀에서 여러 시스템과 플랫폼 관리를 맡고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우선 재단 내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경영관리시스템, 내부 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기획·개선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거나 직원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으로는 시민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 누리집과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I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단 20주년 기념 누리집 구축을 담당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나요. 20주년 기념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20주년은 딱 한번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1년 차인 제게 뜻깊은 경험이었죠.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단의 20년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고, 몰랐던 역사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이 20주년 누리집에 대해 좋은 피드백을 주신 게 제게는 무척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관련해서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IT 부서에 있다보니 AI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도용 문제와 그로 인한 저작권 범위와 침해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최근 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님께서 관련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 동아리나 소규모 모임을 지원해 거창하고 잘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모임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도록 유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어릴 적 자주 듣던, 혹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보면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잊고 있던 여러 음악을 찾아보고 '곡이 이런 형태구나', '이런 의도로 썼구나' 하면서 이런저런 감정과 떠오르는 것들을 메모해놓거든요. 메모하다보면 무언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제게 좋은 영감이 되고 있어요.

올해 첫 '페이퍼로그'의 주인공이 된 소감은 어떤가요. 평소에 재단 청사 곳곳에 비치된 [문화+서울]을 꼭 챙겨 읽는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초대해주신 홍보마케팅팀 안미영 대리, 임효진 사진작가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특별히진 않지만 새로운 취미인 그림을 열심히 배워서 제 클라우드를 그림으로 채워보고 싶어요. 업무적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잘 마무리해서 예술가와 시민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눈앞의 과제들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웃음)

예술인들의 디지털 박물관 서울예술인NFT



↑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 극단 불의전차



↑ 클라리네티스트 유문선



↓ 무용가 김세연



↑ 철현금 연주자 류경화

서울예술인NFT 사업은 예술인들이 창작한 디지털 아트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체불가토큰NFT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며 동시에 예술인과 예술 작품을 보존하고 기록한다. NFT는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층위의 신뢰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디지털 아카이브다.

2021년,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 불린 블록체인 열풍과 함께 NFT가 새로운 미래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이 사업이 시작됐다. 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위 증명으로 이미지·게임·음악 등 가상 자산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 NFT 작품을 거래할 가능성을 열었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파일의 주소를 NFT에 담아 고유성과 소유권을 나타내고, 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을 인정받는다.

NFT는 디지털 아트를 전례 없는 차원으로 유입시키며 예술의 소유 개념을 변화시켰다. 특히 미술계 내에서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새로운 디지털 아트 시장을 확장했다. 미술품 시장이나

엔터테인먼트·유통·게임 업계 등에서 NFT를 발행하고 활용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호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NFT가 최근 마켓플레이스와 기업의 시장 서비스 종료, 규제로 인해 외면받고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약세장의 흐름 안에 놓였다. NFT 열풍이 전 같지 않아 NFT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은 3년째 지속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디지털 아트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공연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작품 제작에서 발행, 유통, 홍보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3년간 20대부터 70대까지 예술인(단체) 89명(팀)을 미래 기술 환경으로 진입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예술지원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의 작품을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선보이며, 사업 참여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극·무용·전통·음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단체의 예술적 정체성과 아이디어를 담은 NFT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재단과 제휴 맺은 블록체인 플랫폼(메타갤럭시아)을 통해 발행한다. 작품은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유통되며, 지난 연말부터 26개의 신규 제작 작품을 공개하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제작된 작품도 한정 수량 다시 한번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작품은 최소 수수료 10%를 제하고 판매 수익 전액이 예술인에게 귀속돼 예술인의 수익 창출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예술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로, NFT를 통해 예술 작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다. 작품 구매자는 자신만의 지갑에 희소성 있는 예술 작품을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인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다. 몇몇 작품은 구매 시 별도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있으니 차별화된 혜택을 경험해보는 것도 NFT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문화자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다
2024년에는 배우 손숙, 극단 불의전차,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등 공연예술인의 참여로 총 26개의 크리에이티브 NFT가 신규 제작됐다. 영상·모션

그래픽·애니메이션·이미지·사운드 등 다양각색의 NFT 작품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작품 가격은 최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발행되는 숫자도 작품마다 상이하다. 2022년 30명, 2023년 33명의 NFT를 제작했으며, 2024년까지 도합 89명의 NFT 3,200여 개가 발행됐다.

서울예술인NFT 제작 지원을 통해 참여 예술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구성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현재의 예술적 가치를 미래까지 영구히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전승한다. 공연예술 형태로 무대 위에서 존재하던 예술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시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진다.

서울문화재단은 미래 문화자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작품을 오프라인 갤러리까지 연결, 더 많은 사람들과 NFT 작품을 나눌 수 있도록 확장했다. 제작된 작품을 실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1층에 '서울예술인NFT 갤러리'를 재조성해 그간 제작된 NFT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과 예술인 누구나 즐길 거리가 될 것이다.

단순히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예술계의 주목을 끌 수 있겠지만,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인NFT 사업은 그 자체로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한다. 함께하는 예술인들은 상상력을 넓히고, 전례 없는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볼 기회다. 예술인의 공연예술 형태와 접근 방식이 달라질지라도 고유한 예술적 가치는 NFT를 통해 영구히, 손상 없이 보존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아트가 자산이자 문화유산으로 더욱 인정받을 미래를 기대해본다.

- 2024 서울예술인NFT 참여 예술인**
- 연극 | 박완규, 손숙, 이철희, 극단 불의전차, 극단 신세계, 프로젝트 아일랜드
 - 무용 | 김보라, 김성훈(김성훈댄스프로젝트), 김세연, 윤전일, 정훈목, 조인호(우보만리), 99아트컴퍼니
 - 전통 | 류경화, 박세연, 이춘희, 황진아, (사)고성오광대, 악단광칠
 - 음악 | 문태국, 유문선, 이명현, 이한나, 정주연, 한수진, 심포니송

다정한 산타의 노들공장 안내서 노들윈터페스타

이 계절, 노들섬에 어떤 매력을 더해야 오시는 분들이 기뻐할까. 고민한 끝에 저는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들섬에 따뜻함과 다정함을 잔뜩 담기로 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공장 떠오르는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 산타의 선물공장. 폭신한 인형, 달콤한 초콜릿, 멋진 크레파스까지 요정들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만들고 알록달록 포장하고 있어요. 공장 한편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편지에 둘러싸여 답장을 쓰던 산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물 받는 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 요정들도 더 힘내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산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곁으로 와 행복한 선물공장을 차리기로 말이죠!”

그렇게 ‘산타의 노들공장’이 탄생했고 2개월간 30여명 전문가와 함께 노들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노들라운지를 산타의 선물공장 콘셉트의 테마라운지로 바꾸고 여러 장치를 더했습니다.

‘산타의 노들공장’에서 무슨 일이?

❶ **테마라운지**로 정한 노들라운지는 종일 별이 잘 들어 따뜻하고 밝은 공간에, 감각적이고 편안한 책걸상이 비치돼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휴게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공간의 본래 매력을 유지하되 콘셉트를 더해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멋진 트리와 요정이 환대하고 선물공장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한 공장 안내도, 요정들이 만든 선물을 보관하는 창고 콘셉트를 공간에 녹이기 위한 디테일을 더했고, 마침내 테마라운지가 완성됐습니다.

❷ **상설 이벤트**가 열리는 1층 중앙정원에서 노들라운지를 들여다보면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



나란히 있습니다. 실내 벽도 투명한 창으로 되어 짹짹 놀랄 만큼 매력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산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꾸였고, 또 다른 방은 요정이 만든 선물을 쌓아두는 창고로 꾸몄습니다. 첫 번째 방은 편지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사단법인 온기와 함께 온기우체국을 차렸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을 편지로 적어 노란우체통에 넣으면 4주 후 손으로 적은 답장을 받을 수 있는데, 1,500여명의 시민이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은 창고형 식물 인테리어 브랜드 솔로우파마씨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요정들이 산타에게 온 편지를 읽고 그에 맞는 선물을 부지런히 만들고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해둔 그림을 구현해주세요’라는 주문 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산타의 노들공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❸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선물공장을 운영하는 요정들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살아 있는 요정을 초대하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연령·성별의 30명을 모집해 산타의 노들공장 세계관을 공부하고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나눴습니다. 캐럴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는 노래요정, 5분 안에 똑딱 크리스마스카드를 그려주는 그림요정, 인생사진을 찍어드리는 사진요정, 노들한바퀴를 함께하는 산책요정까지, 완벽하게 요정으로 분해 노들공장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덧붙여, 요정들의 다정함과 유쾌함에 반해 따뜻한 캔커피를 한가득 선물해주신 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기쁜 하루 보냈습니다.

❹ **크리스마스 마켓**은 선물공장이나 선물은 당연한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찾아주시는 시민 모두를 산타로 만들어 드리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켓을 열어보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달콤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한 선물을 만드는 브랜드 19곳을 모았습니다. 모두 노들공장의 취지와 콘셉트에 진심으로 동의해 좋은 품질의 선물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마켓을 운영하는 나흘간 잠깐의 실 틈도 없이 시민 산타가 몰려와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 가볍게 귀가하셔서 모든 요정들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❺ **크리스마스에 맞춰 클래스와 공연**도 열렸습니다. 마켓이 진행되는 기간 노들공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크리스마스 클래스와 공연을 준비한 것이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과 함께 상드리에와 무드등 만들기, 연인을 위한 클래스로는 티코스터 손뜨기와 모루인형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이든 똑딱 만드는 만들기요정과 시민 100여 명이 4일간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은 금관악기부터 타악기, 클래식

음악부터 재즈,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캐럴을 즐기는 무대였습니다. 어린이 관객들은 아는 캐럴이 나올 때마다 흥겹게 따라 부르며 더욱 풍성한 공연을 즐겼다고요.

산타의 노들공장은 지난해 11월 22일 공장 오픈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만 명 시민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노들섬의 겨울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월 19일까지 노들섬에서 산타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연·전시·체험·교육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운영하며 배운 노하우와 노들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해 노들섬의 2025년을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매력적인 노들예술섬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N개의 문화, N개의 이야기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

지난 12월 10일,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빛내고 있는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가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재단과 구청이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예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굴된 'N개의 문화, N개의 이야기'와 앞으로 발굴해 나갈 이야기들에 대한 가능성과 발견을 모색하는 자리다.

'N개의 서울'은 서울을 이루는 25개 자치구별 생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의 연결과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의 고유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정 영역과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볼 수 있게 했다. 'N개의 서울'은 2019년부터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성장을 함께해오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에는 '광역-기초 자치구 협력형 사업'의 통합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해 '지역문화·생활예술', '인디음악', '문화예술교육' 3개 분야를 지원했다. 최선영 모더레이터와 함께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자치구마다 적극적으로 N개의 지역문화를 해석해나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N개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지역문화·생활예술 활성화
"사람을 만나는 도시, 사람을 만드는 도시"
 성동문화재단은 '골목길'을 주민과 이웃이 만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성동별곡'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기획자 양성, 지역 예술가와 공간의 연결, 지역 아카이브, 로컬 영화 프로젝트, 시니어 예술교육을 통해 '골목길'을 주민들이 '놀이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기획한 지점이 돋보였다.

도봉문화재단은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지역 정체성을 조명했다. 도봉구는 서울의 여타 지역에 비해 문화자원이 잘 조성되거나 예술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도봉구에 머무르고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아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통해 기존 문래창작촌 중심의 예술제를 영등포 전역으로 확장했다. 예술제를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의 창작을 지원하고, 일상 공간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가의 우연한 만남을 제공했다. 특히 지역을 문화예술 이벤트가 벌어지는 설레는 장소로, 영등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경험과 추억을 전달하고자 한 기획이 흥미로웠다.

올해 종로문화재단은 '종로 지역에 대한 탐구'와 '주민참여 사업 확대'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는 종로 지역의 극단과 전문 예술단체, 예술가가 협업하는 형태의 기존 지역문화 사업 운영 방식과는 달리, 재단이 지역 주민과 밀착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문화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바라본 '종로'는 어떠한 형태이고,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인디하지 않은 인디한 이야기"
 은평문화재단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음악을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시작하고, 나아가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에서 '디기디기딩 은평'을 기획했다. '서울 시골클럽'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불광 라이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 '디깅프로젝트' 등 지역의 특색을 담기 위한 '디깅즈n은평' 추진단과 함께 은평 인디음악 신의 새로운 아티스트와 공간을 발굴했다.

관악문화재단은 '관악 인디음악 기획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공연 '월간 관악'을 운영하며 지역 거점 공간의 자생력을 강화했다. 특히 '자율 티켓 정책'을 운영해 공간과 아티스트의 이익 공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결과,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새로운 참여 공간이 등장하고 주1회 기획 공연을 운영하던 공간이 사업을 통해 매일 기획 공연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은 언제나 예측불허"
 강동문화재단은 강동구의 녹지 자원을 활용해 유아·가족 대상의 예술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자연과 예술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장소-암사동선사유적지', '날씨-생태와 녹지', '참여자-아동과 가족, 공동체'의 키워드를 가지고, 참여자들이 단순 체험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 경험을 프로그램에 담아냈다.

성북문화재단은 지역 어린이 미술관에서 '미술관-지역-학교' 연계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미술관에 대한 물리·심리적 접근성을 낮추고자,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미술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운영했다.

양천문화재단은 '언어와 예술'이 융합되고, '농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창적인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로 서로의 세계로 들어가 공감하는 지역협력형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그림동화를 매개로 도서가 가진 이미지 언어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임 언어·소리 언어로 변환하고, 그것을 다시 참여자들이 전시 형태로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했다.

지역문화의 연결, 서울의 새로운 가능성
 사례 발표 후에는 축하공연과 함께 자치구 실무자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인디뮤지션 타이거디스코의 흥겨운 연말 DJ 무대가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사업 사례를 교류하던 공간은 자치구 실무자들이 한 해의 수고를 나누고 응원하는 대화의 자리로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담당자 시상식에서는 한 해 최선을 다한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2024년 'N개의 서울' 네트워킹 데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현장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 서울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의 지역을 각 자치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탐구하며, 지역 안에서 '지역문화·생활예술', '인디음악', '예술교육'의 문화예술 생태계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독일 문화예술계, 안녕한가요?

2024년 말, 드레스덴 도심의 카롤라 다리가 한밤중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독일 경제와 인프라의 현주소'라는 상징성을 얻었다. 시스템은 너무 낡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현 독일의 자원과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해결책을 내놓고 실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굶아가던 문제는 카롤라 다리처럼 순식간에 내려앉는다.

독일 문화예술계에도 우려할 만한 전조 증상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베를린에서 그 증상이 두드러진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도시의 미술·음악·영화·문학·무용 등 예술단체들은 지난해 대비 13% 적은 예산으로 운영돼야 한다. 삭감액은 1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2천억 원이다.

예산 초안은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반발을 샀다. 몇몇 극장은 예정된 프로덕션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장 1년 이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게 자명했다. 한 달에 1번 있던 미술관·박물관 무료입장 혜택이 폐지되고, 연극·오페라 티켓

가격은 높아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베를린이 문화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원과 시위가 잇따랐다. 실험극의 산실인 샤우뷔네 Schaubühne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싱켈 파빌리온 Schinkel Pavillon 등 문화예술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큰 반발에 부딪혀, 전체 목표 절감액 1억 3천만 유로 내에서 삭감 대상이 재조정됐다. 어린이·청소년극 극장에 할당된 대규모 삭감액은 전면 파기됐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술인 지원 제도 관련 예산이 훨씬 줄었다. 베를린의



← '베를린이 문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시위 현장의 모습 ©BerlinIstKultur

세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코미세 오페라 Komische Oper Berlin는 이미 확정된 리모델링 예산이 축소돼 공사를 미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 Konzerthaus Berlin은 2월 예정인 'Projections' 페스티벌을 취소했다. 정기 공연을 지킨 대신, 현대음악을 다루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축소할 결과다. 제바스티안 노르트만 Sebastian Nordmann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 극장장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위한 실험과 혁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오래된 문제가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예산안 발표 전부터 이미 베를린의 몇몇 문화 공간은 고공 행진하는 월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폐관 위기를 겪고 있었다. 2024년 베를린의 테크노 문화 Techno Culture in Berlin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예술적 가치를 마침내 인정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적인 베를린의 클럽 두 곳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로 2025년 중 폐관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클럽도 높아지는 월세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데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대규모 전자 댄스음악 페스티벌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퀸른·본·드레스덴·뮌헨 등 다른 도시도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 외에 해묵은 문제들로

시름하고 있다. 퀸른 오페라극장 Oper Köln은 당초 2015년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현재 2030년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비용은 당초 2억 5천만 유로에서 14억 5천만 유로(한화 약 2조 원)까지 불어났다. 베토벤 탄생지인 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6년 개보수 공사에 착수한 베토벤홀러 Beethovenhalle는 작곡가 탄생 250주년인 2020년 재개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목표 개관일은 2025년 초로 잡혀 있다. 드레스덴의 한 박물관은 당장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도 보수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예술 국가'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저렴한 생활비가 예술가들을 베를린으로 끌어들이고, 전쟁의 잔해였던 방커는 예술이 탄생하는 무대와 캔버스가 됐다. 덕분에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한(Poor but Sexy)' 도시로 거듭났다. 오늘날 베를린을 찾는 여행객의 절반 이상은 그 유산, 베를린의 예술을 만나기 위해 여정에 오른다.

과거 베를린의 매력이던 '저렴한 물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생존에 허덕이는 예술가들을 보호할 장치와 공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살펴야 할 문제들이 수두룩해 독일 문화예술계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샤우뷔네 극장은 건물 전면이 '꽤 어두워졌네(Es ist etwas dunkel geworden)'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는 단지 상영 작품의 대사가 아니다. 독일 문화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절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SEOUL!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CULTURE!



ARTS



시민 문화예술교육

유아(일반모집형/기관모집형)
일반(자율기획형/공간연계형)

EDUCATION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서울문화재단
공고문 확인하기

공고 2025.1.20.(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및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사업
설명회** 2025.1.22.(수)

접수 2025.1.24.(금) 10시 - 2.12.(수) 17시

접수 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온라인 접수(<http://scas.kr/scas>)
- 사업 별로 지원 방향, 운영 내용, 심의 일정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너머의 세상
"과거가 현재를 도울수 있는가?"
걸다가 마주친 춤
납작한 안무에 생명 불어넣는건 우리들이지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줌는다
한을 품고 시작하기—한발과 한걸음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살풀이춤, 온전히 자신을 가다듬는 춤사위
일상 결의 공예
공예에 깃든 시대미학

illust ©slowrecipe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수상 기념 연설문에는 이십 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은 문장들이 언급됐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시간이 흘러, <소년이 온다>를 쓰는 한강 작가가 1980년 5월 당시 살해된 박용준의 일기에 적힌 문장(“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을 만나면서 거꾸로 뒤집힌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는 지나간 것, 잊힌 것,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일까? 과거야말로 현재를 도울 힘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생의 언어 아닐까.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팀 밀란츠(Tim Mielants) 감독의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Small Things Like These)>을 보며 <소년이 온다>를 쓰던 한강이 제시처럼 얻은 그 ‘거꾸로 된’ 질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클레어 키건은 2009년 <말겨진 소녀>를 쓰고 11년이 지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2020을 발표했다. 단행본 분량은 114쪽.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작가 은유는 “핀셋으로 뽑아낸 듯 정교한 문장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응하다 한 방에 시적인 순간을 탄생시킨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인간’의 탄생이다. ‘가족 인간’이기를 멈추는 선택이다.”라고 적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한강의 연설문과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연관성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나, 영화가

‘시적인 순간’을 어떻게 영상으로 쌓아 완성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영화 읽기의 경험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1980년대 아일랜드의 소도시에 살아가는 빌 펄롱(킬리언 머피)은 석탄 가게를 한다. 그는 직접 석탄을 배달하고, 밤이 되면 아내와 딸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온통 석탄재가 묻은 손을 구석구석 씻는다. 성실한 가장인 그는 독실한 가톨릭 공동체의 신뢰받는 일원이기도 하다. 예민해 보이는 그는 자주 침묵에 잠기는데, 그의 예민함도 침묵도 그의 일상을 돌아봐서는 그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다. 무엇이 그를 자꾸 멈춰 세우는가? 그의 과거가 조금씩 단서를 드러내기 시작하기 전까지 관객은 그저 짐작할 뿐이다. 초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그의 아내처럼. 아일랜드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는 미혼모를 위한 보호소이자 입양기관으로 기능했으나 실제로는 종교단체와 국가의 협력 아래 “타락한 여성”을 감금하고 노역에 이용했으며,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 보내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런 정보 없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빌 펄롱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빌 펄롱은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다가,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녀원으로 끌려들어 가는

젊은 여자를 보게 된다. 추측하자면 가족들이 그녀를 데리고 온 듯 보인다. 아마도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듯하다. 그 수녀원은 그런 “타락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니까. 보호한다고? 실제로 그 안에서 여자들은 감금 상태에서 노역에 시달렸고 학대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녀원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녀들이 마을의 실세이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있다. 나아가 수녀원에 반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적극적인 보이콧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석탄을 파는 빌에게 이 모든 것은 신경 써야 할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빌은 수녀원의 석탄 창고에 갇힌 미혼모(자라 데블린)를 발견한다. 그녀를 돕기 위해 수녀원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는 안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발견한다. 빌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수녀원장 메리(에밀리 워튼)의 압박을 느끼지만, 아니,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처럼은 살 수 없게 된다. 불면은 심해진다. 침묵은 깊어진다. 영화는 사이사이 삽입한 과거 회상 신을 통해 빌이 일찍이 고아가 되었으나 어느 친절한 어른의 후원 아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지금의 그가 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이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그럴 만하면서도 동시에 심히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사생아인 빌을 낳은 어머니가 만일 좋은 어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막달레나 세탁소 같은 곳으로 끌려갔다면, 지금의 그는 없는 것이다. 그 생각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다.

영화는 적막한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빌의 모습을 보여준다. 닫힌 수녀원의 문을 응시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빌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가 지켜내야 할 아내와 다섯 딸이 있는 안락한 가정의 모습 또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에 다시금 사로잡히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낸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그가 석탄 창고에서 발견한 학대 당하는 소녀다. 그의 갈등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한다. 수녀들에 대적하지 마. 하지만 석탄 창고에 갇힌 소녀를 두 번째로 발견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빌 펄롱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제목처럼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웃의 충고대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운 좋게 얻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행동하기를 택한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의 심경을 읽을 기회는 영화에서 오로지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의 망설임을 지켜보는 내내 생각하게 된다. 내가 행동할 수 있었던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일들에 대하여.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를 알면서 이 모든 일에 눈감 수 있는가. 답을 구하는 질문은 기도처럼 절박해진다. 생활에 낡고 지친 소시민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기적 혹은 축복은 이웃을, 동시에 그 자신을 구하는 것이었다.



납작한 안무에 생명 불어넣는 건 우리들이지

정육희 무용평론가

‘세마sema’를 아시나요?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의 종교의식입니다. 흰색의 긴 치마를 입고 높은 모자를 쓴 수행자가 오른손은 하늘로, 왼손은 땅으로 향해 뻗고 머리를 지구의 자전축만큼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신과의 일체감을 추구합니다. 빙빙 도는 모습으로 인해 흔히 수피 댄스Sufi dance라 불리지만 춤이라기보다는 종교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무인 것은 확실합니다.

안무choreography는 움직임을 구조화하는 행위입니다. 모호하고 유동적이며 광활한 움직임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안무는 역사적으로 춤과 긴밀한 개념이지만 반드시 춤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무용학자들은 통념적인 안무, 즉 춤 동작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행위뿐 아니라 움직임을 조직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안무라 봅니다. 세마처럼 춤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러나 춤과 유사한 행위를 비롯해 군대의 행렬이나 철새의 이동, 반려동물의 훈련처럼 춤과 전혀 닮지 않는 움직임에서도 안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안무를 경험하고 수행해왔습니다. 국민체조, 좌측동행, 한 줄 서기 모두 일종의

안무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지요. 수업의 목표는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참아내는 안무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앉아 있기는 사회적 질서와 문명, 혹은 훈육과 통치를 위한 안무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안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손 들고 벌서기는 아마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강력한 안무일 것입니다. 팔이 저릿저릿해도 내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울음을 터뜨리지요. 벽 보고 서 있거나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등도 정적이지만 억압적인 안무입니다. 주어진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강제하는 힘은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모든 안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안무는 즐거움과 해방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춤 마카레나macarena를 떠올려봅시다. 16박자 동안 두 팔을 앞으로 폈다가 차례로 접는 안무로, 16박자마다 1/4바퀴씩 몸 방향을 회전해 64박자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기차놀이 하듯 일렬로 늘어진 사람들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면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군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동작구를 반복하며 대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라인댄스나 포크댄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날 춤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띤 안무도 많지만 납작하고 단순한 안무 역시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1초에 서너 동작씩 하는 화려한 안무에 열광하는 동시에 지극히 쉽고 반복적인 안무를 끊임없이 수행해왔습니다. 꼭짓점댄스, 제로투댄스, 치실춤, 트로피카나 등의 춤 혹은 춤이라 할 수 없는 율동이 밍이 되어 주기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이들 안무는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의 개념을 응용하자면) 뜨거운 안무가 아닌 차가운 안무, 혹은 (미디어아티스트 히토 슈타이얼의 개념을 응용하자면) 고해상도의 안무가 아닌 빈곤한 안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무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건만 왜 빈곤한 안무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혹은 현란한 안무의 시대에 빈곤한 안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안무는 우리를 옅어매는 동시에 해방시켜 줍니다. 근대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은 현대 사회에선 선택의 무한함이 압박이 됩니다. 이에 구조에 자신을 맡길 때 개인은 결정과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 내가 나의 모든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자유로움을 느끼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감히 움직일 엄두를 못 내겠지요. 이때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안무를 따라 하는 것은 부담을 덜고 움직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조, 특히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역설은 꼭 안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생이 된 이후부터 쿵 겹질 까기나 멀치 다듬기, 설거지 등 가사를 좋아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공부보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노동에서 휴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뜨개질이나 컬러링 북에 열광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 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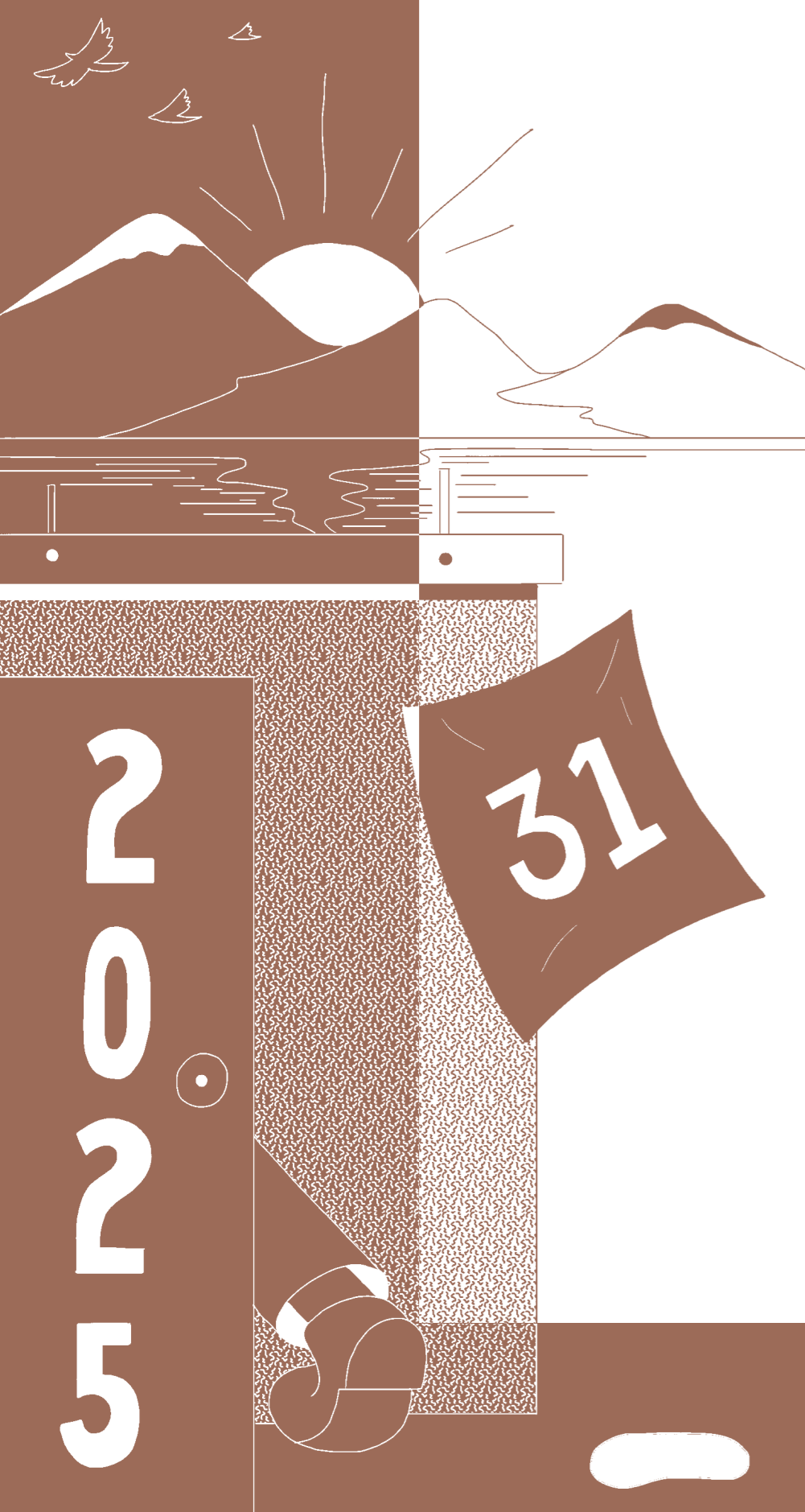
단순하고 반복적인 안무가 주는 자유와 해방감은 종교적 수행이나 명상과도 연결됩니다. 각종 종교의식을 살펴보면 두 팔을 들고 빙빙 도는 세마를 비롯해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절하는 삼보일배, 염주나 목주의 구슬을 한 알씩 넘기는 기도 등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안무가 많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잡념과 번뇌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나 의미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란 이토록 어렵기만 합니다.

나아가 빈곤한 안무는 집단 간 연대를 강화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라인댄스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안무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질적인 주체가 구조에 맞춰가는 행위를 통해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래의 안무가 지닌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흥겨운 민속춤이 서글픈 저항의 춤이 되기도 하고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던 춤이 더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국 안무는 움직임 구조이고 그 구조는 뻑뻑하거나 성글기

마련입니다. 이를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글고 빈약한 안무가 지닌 힘과 자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무는 구조일 뿐이고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은 행위자의 몫입니다. 매클루언이 정보로 가득 찬 뜨거운 미디어보다 차가운 미디어가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인다고 말한 것처럼, 납작한 안무에 풍부한 의미를 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한을 품고 시작하기 —한발과 한걸음

오은 시인

한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서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이나 “같은”, 혹은 “대략”을 의미하는 관형사 ‘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을 품어야 하나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한 발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으니까. ‘한편’, 한과 발을 붙여 ‘한발’이라고 쓰면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다른 동작이나 행동보다 시간·위치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한발 늦을 수도 있고 한발 앞서거나 뒤쳐질 수도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면 한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해가 밝기 전에 2025년 다이어리를 사고 새해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이는 한발 빠르게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이 글을 쓴다. 아쉬움과 기대감을 저글링 하는 마음으로 쓴다. 끄트머리는 “끝이 되는 부분”을 뜻한다. 한 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마지막 날을 12월 31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만 했을 것이다.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겨우 짐작했을 것이다. 자신이 몇 살인지,

태어나고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 몸이 자라기를 왜 멈추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아예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일은 언제 오는지, 내년에 무엇을 할지, 10년 뒤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 살 더 먹는 일이 어릴 적만큼 기쁘지는 않지만, 한 해가 있어 끄트머리에서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실로 다행이다.

끄트머리의 두 번째 뜻은 “일의 실마리”다. 잘 알다시피 실마리는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를 가리킨다.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실을 바늘귀에 넣고 마침내 바느질을 시작할 수 있다. 실마리는 또한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해결의 실마리, 대화의 실마리, 화해의 실마리…… 삶을 지속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실마리인 셈이다. 실은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잇고 꿰면 튼튼한 옷감이 만들어진다.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마리를 찾거나 실마리가 풀리면, 그것은 열매를 뜻하는 실뿔로 연결될 수 있다. 매듭을 푸는 사람 이전에 매듭을 지은 사람이 있었듯, 실마리를 푸는 사람 이전에도 실타래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한’이라는 글자를 머릿속 한가운데에 적어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한차례’다. 이상하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 나에게 ‘한’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한바탕’이 있는 모양이다. ‘한차례’는 다름 아닌 “어떤 일이 한바탕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차례의 폭우, 한차례의 폭설, 한차례의 소란, 한차례의 고성, 한차례의 몸살감기…… 한차례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크게든 작게든 삶을 뒤흔든다. 개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차례의 폭소”다. 폭소로 인해 긴장감은 해소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두 차례까지도 필요 없는 꼭 한차례의 폭소, 단상이나 무대에 올라 이야기해야 할 때 가장 간절해지는 것도 이것이다. 한바탕 웃고 나면 가까워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웃음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한편’이 되는 작은 기적이다.

‘한곳’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한다. 한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터줏대감이 되고 동네 곳곳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한곳이 직장일 때면, 그는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사람’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실은 한사람이었음을 발견할 때면 얼굴 전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나무 한 그루와는 달리, ‘한그루’는 “한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한 번 짓는 일”이나 “한 농경지에 한 종류의 농작물만을 심어 가꾸는 일”을 가리킨다. ‘한 번’이 횟수가 중요하다면 ‘한번’은 어느 때에 찾아올 기회를 품고 있는 단어다. ‘한해살이’ 농작물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가도, ‘한봄’과 ‘한여름’에 그자리에 다시 고개를 들 농작물을 떠올릴 때면 ‘한곳’이 품고 있는 가능성에 탄복하게 된다.

삶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종종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어려울 때”를 뜻하는 ‘한고비’를 넘겨야 한다. 한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나와 ‘한뜻’을 품고 ‘한목소리’를 내주는 ‘한통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뜻을 품은 이상 “한 사람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다”를 뜻하는 ‘한뉘하다’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한다. ‘한낱한시’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한마음’으로 뭉치기란 가히 어려운 일이다. ‘한쪽’의 맨 끝을 뜻하는 ‘한끝’ 사이를 오가며 근소한 차이를 뜻하는 ‘한끗’을 끊임없이 헤아려야 한다. ‘한뼘천’을 잡고 싶은 욕심이 들거나 나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질 때면 “기껏해야 대단한 것 없이 다만”을 의미하는 부사 ‘한개’를 떠올리면 된다. ‘고작’이나 ‘기껏’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 단어는 나를 ‘일개’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한낱’으로 만들어준다.

‘한발’로 글을 시작했으니, 발의 움직임에 담은 ‘한걸음’으로 끝에 도착해야겠다. ‘한걸음’은 ‘한 걸음’과 다르다. ‘한 걸음’이 걸음 하나를 가리킨다면, ‘한걸음’은 “쉬지 아니하고 내쳐 걷는 걸음이나 움직임”을 뜻한다. 달리는 행동을 담은 ‘한달음’보다는 한걸 차분하지만, 내친김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느껴지는 단어다. 한걸음에 이동해서 도착한 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희망일까, 가능성일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일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이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한발’과 ‘한걸음’은 결심한 사람에게만 깃드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한발 앞섰기에 볼 수 있었던 풍경, 한걸음에 내달렸기에 마주할 수 있었던 기적 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앞에서 우리는 절호의 타이밍에 또 한번 ‘한껏’ 환호할 것이다. ‘한편’ 승부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살풀이춤, 온전히 자신을 가다듬는 춤사위

김보나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살풀이춤의 계절이 왔다. ‘살풀이’에 한 해 살을 풀어 없앤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만큼, 설이 오기 전까지 묵은 살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기에 적절한 의식이다. 그래서인지 12월 한 달간 <전통춤 류파전>에서 김숙자·이매방·한영숙류 살풀이춤을 공연하는 것에서부터 국립국악원 <토요명품>을 비롯해 각지에서 살풀이춤 공연이 열렸다.

살풀이춤의 기원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곳에서 시작된 춤이 일제 강점기에 사라지면서 교방문화로 이어졌다가 무대화되었다는 설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헌상의 기록은 1918년 『조선미인보감』을 시작으로 본다. 남부 지방 민간에서 추는 ‘남중속무’를 살풀이춤으로 보고 있어서다. ‘살풀이춤’이라는 명칭의 공식 기록은 당대 명창 사이에서 손꼽히던 명고수이자 근대 한국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의 1938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 공연이다. 물론 신라 시대 도술가가 도살풀이 또는 살풀이로 해석하고 있어, 살풀이와 살풀이춤이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서민의 삶에 녹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살풀이춤은 오랜 세월 우리의 애환을 풀어주는

춤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오방색의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굿판에서 유래를 찾는 춤임에도 백색 혹은 옥색에 이렇다 할 장신구 하나 없이 단출한 옷을 입고 추는 춤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병에 걸린 아버지의 병을 낮게 하려고 흰옷을 입고 춤을 추었더니 아버지 병이 나았다’는 설화와 연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의상이나 장신구가 없어도 길거나 짧은 수건을 허공으로 던지듯이 풀었다 당겨 받고 어깨에 메거나 땅에 떨어뜨리는 등의 춤사위나, 한없이 화려한 발재간은 그 자체만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예술성을 보여준다. 그 아름다움을 두고 한 시인은 “금빛 실타래”, “흔들리는 꽃잎”, “춤추는 나비” 등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푸르스름한 빛으로 빛나는 세상
내 마음의 금빛 실타래
부드럽게 흔들리는 꽃잎
샛바람 불어오는 사이
푸른 생명의 꿈
춤추는 새하얀 나비처럼
뜨거운 욕망의 끝에서
젖어 드는 기쁨의 햇살
고요히 맑은 마음의 그림자
김월주, ‘살풀이’

살풀이춤에는 여러 이름이 있다. 손에 길고 짧은 수건을 들고 추기에 ‘수건춤’이라고도 불리고, 1980년대부터는 수건 없이 추는 ‘민살풀이춤’도 생겼다. 즉흥성이 두드러져 ‘허튼춤’, ‘산조춤’이라고도 불리고, 의례적 성격을 담아 ‘도살풀이춤’ 등으로 불리는데 모두 나쁜 기운을 풀어 없앤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 살풀이춤은 즉흥성이 강하면서도 지역별 유파의 개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살풀이춤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조부의 춤을 이어받은 한영숙 명무의 말이다.

학춤을 출 때는
학이 되어야 하고,
태평무를 출 때는
궁중의 여인처럼 크고 화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승무를 출 때는
법고 앞에 선 불제자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지만,
살풀이를 출 때는
온전히 그 자신으로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김영희, 『춤경』, 2016

조부의 춤을 이어받은 한영숙은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완성했고, 그 춤은 다시 이은주가 이었으며 2015년,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유자로 지정됐다. 서울·경기권에 한성준의 춤을 이은 한영숙류 살풀이춤이 있듯이, 경기도에는 김인호의 춤을 이어 만든 이동안류가 있고, 대전에는 김숙자의 춤을 이은 김란류가 있다. 전라도에는 이대조의 춤을 이은 이매방류, 전북에는 추월의 춤을 전승한 최선류, 대구 박지홍의 춤을 이은 권명화류도 빼놓을 수 없다.

무형유산의 하나로 살풀이춤을 살펴보면 마치 오래된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담백하고 은은한 매력을 지닌 춤과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우리의 삶에 생동하고 있음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도 있다. 대표적 예가 BIS 지민의 살풀이춤이다.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퍼포먼스에 관해 고려대학교 지영선 명예교수는 “한국 문화와 예술의 재발견”이며, “살풀이춤과 함께 최고의 문화와 최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 퍼포먼스가 있기 전까지 살풀이춤을 상상하며 으레 ‘한’의 정서를 떠올린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 정서엔 ‘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흥’도 있다. ‘한’을 그쳐 ‘한’으로만 받아들이다면 전통 장례나 굿판에서 벌어지는 연주와 춤사위의 의미는 퇴색하고 만다. 살풀이춤도 마찬가지다. 살풀이춤을 통해 풀어내는 살, 즉 액뎌은 일상의



고단함일 수도, 시기에 따른 고난일 수도, 예기치 못한 병마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것을 모두 털어내고 흥으로 승화해 일상의 기쁨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살풀이춤의 바람이다. 그래서 살풀이춤에는 ‘한’과 ‘흥’이 모두 담겨 있다. 1938년 6월 19일, 살풀이춤 공연에 관해 조선일보에 실린 공연 후기에도 이런 문구가 담겨 있다. “이 춤은 가장 통속적인 춤으로 처녀가 수건을 쓰고 흥에 겨워 추는 춤이다.” 필시 살을 풀어내고 난 춤꾼의 흥을 엿보았으리라. 이제 우리도 한 해 묵은 액을 털고 흥으로 새해를 맞아볼 때다.



공예에 깃든 시대 미학

김수진 노블레스 라이프스타일팀장

인간의 손길로 완성된 예술적 유산이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언어, 공예. 정교한 기술과 창의적 상상력이 결합한 공예품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오브제로 기능한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도자기와 주얼리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전시를 소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 도자공예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시《한국 현대 도자공예: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5월 6일까지)이 한창이다. 오래전부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의식을 대표하는 민족적 상징으로 여겨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들을 잇는 새로운 도자공예의 대표 양식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렇다면 현대 도자공예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전시는 시대별로 섹션을 나누고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도자공예 작품을 한데 모아 그것에 반영된 흐름과 양식을 탐구한다. 일제 강점기의 그늘과 6.25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자 했던 1950년대를 시작으로 한국 도자공예가 본격적으로 현대성을 갖추게 된 1960년대,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계기로 해외 예술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1980~90년대, 다원화·혼종성·탈식민화를 추구하는 21세기 도자공예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통해 한국 도자공예가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대까지 이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견희 컬렉션에서 기증받은 도화 시리즈 12점을 최초로 공개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지낸 '한국미의 전도사' 최순우의 기획으로 안동오 도공이 제작한 백색 도자기 위에 장우성·김기창·서세욱 등 동양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넣은 작품으로, 시대와 장르가 어우러져

빛어낸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자·회화·영상 약 200점과 아카이브 70여 점을 선보이며, 도자공예의 제작 방식을 이해하는 '감각하는 도예', 청화백자 문양을 표현해보는 '그리는 도예', 참여형 작가 워크숍 '잇는 도예'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1994년 과천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도예 30년》 이후 30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 도자공예를 개괄하는 대규모 전시"라며 "그동안 미비했던 한국 현대 도자사를 정립하고, 도자공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롭게 파악된 것"이라고 정의한 한국 최초의 미술사가 고유성의 말에서 인용한 전시명처럼 그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매 순간 생동해온 도자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롯데뮤지엄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시대정신과 미학이 깃든 예술 작품으로서 주얼리를 조명하는 전시 《디 아트 오브 주얼리 The Art of Jewellery: 고희의 보석, 매혹의 시간》을 3월 16일까지 개최한다. 40여 년간 6,600여 원어치에 달하는 보석을 수집하며 세계 최대 보석 수집가로 이름을 알린 카즈미 아리카와의 컬렉션 208점을 만날 수 있다. 20대 중반 승려가 되기 위해 절에 들어갔다가 불교 장식에 빠져들어 보석의 세계에 눈을 뜬 그는 속세로 돌아와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보석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주얼리 갤러리에서 얻은 큰 감동을 기반으로 고대와 근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귀하고 중요한 주얼리 수집에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다.

전시에서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고른 팔찌부터 독일 뷔르템베르크 왕가의 왕관, '보석 조각의 라파엘로'라 불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발레리오 벨리가 조각한 십자가 주얼리 조각 '크로스', 기원전 330년에 만들어진 올리브 황금 왕관,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의 보석 컬렉션, 뷔르템베르크 왕가의 보석 세트 등 저마다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진귀한 재료와 정교한 수공예 작업을 통해 탄생한 역사적인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컬렉션에 대해 카즈미는 "근대미술사에서는 이 최상의 예술을 그저 사치스러운 공예라 치부해 그 진가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의 시선은 판도가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전시실은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특별히 디자인해 감상의 즐거움을 더한다. 다른 방해 요소 없이 주얼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어둡게 연출하고 배경에는 패브릭만 활용해 하늘하늘한 천과 단단한 보석의 대비되는 물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치장의 도구를 넘어 정치·경제·예술 등 당대의 시대상이 깃든 최고의 공예품이자 인류의 유산으로서 주얼리를 살펴볼 기회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DEAR READER

최근 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문화+서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더 나은 문화+서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제안을 듣게 돼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월 서울 곳곳에서 독자 여러분과 '책'으로 만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2025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가도록 할게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SEASON'S GREETINGS

본투비 내향인인(진짜입니다) 저에게 홍보팀에서의 지난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을 했던 해로 기억됩니다. 새해에는 부디 많이 말하기보다 귀담아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소원을 빌어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아침을 먹을 때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두고 못 읽은 책을 앞에 쌓아 두고 내키는 대로 집어 매일 한두 페이지라도 읽는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날이 온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책을 곁에 두고 열어 봐야지.

전민정 편집위원



연희문화창작촌 마스크트 팀이 ©Studio Kenn

CONTRIBUTOR

저 멀리 보이는 불빛 하나. 흔들리고 점멸하는 아주 작은 빛.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조금씩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빛. 아직 도착하지 않은 빛, 도착할 빛 앞에서 무엇이든 있게 만드는 믿음은 불가능했다. 틀렸다. 제가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일까요? 제 믿음의 흐릿함이 문제일까요? 제 마음의 약함이 문제일까요? 또 저 멀리 보이는 빛을 상상하고 말았습니다. 투명한 손을 잡고 투명한 발의 무게를 느껴보려 애쓰며 우리는 계속 걸었다. 투명한 발등을 파고드는 어둠을 들어 올리며.(김리운, '관광' 부분, 『투명도 혼합 공간』, 2022)

익숙함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신년 호의 그릇에 문학을 담게 해준 우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김태희 디자이너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 대학교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교센터 서울시립미술관
-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www.sfac.or.kr/nft

서울예술인

2024년 12. 27FRI, 31TUE

NFT작품 구매

2024-2025년 제1회 <서울예술인NFT> 작품이 2024년 신규 작품 소개 기념 디지 한 번 공개됩니다

구매 페이지: www.sfac.or.kr/nft



서울예술인NFT



메타컬렉터시아

2024. 12. 20. FRI

무용·음악 장르 OPEN

2024. 12. 24. TUE

연극·전통 장르 OPEN

2024년 <서울예술인NFT> 참여

예술인(단체) 26인의

신규 NFT작품 공개

마감

SEOUL ARTIST